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토마스 아퀴나스 신 존재 증명의  
다섯 가지 길과 철학적 의의

제주대학교 대학원

철학과

심 은 미

2017년 2월

# 토마스 아퀴나스 신 존재 증명의 다섯 가지 길과 철학적 의의

지도교수 이 명 곤

심 은 미

이 논문을 문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7년 2월

심은미의 문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제주대학교 대학원

2017년 2월

Five methods in proofs of the existence of God  
of Thomas Aquinas and the philosophical  
significance

Eun-Mi Shim  
(Supervised by professor Myung-gon Lee)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Arts

2017. 2

Department of Philosophy  
GRADUATE SCHOOL  
JEJU NATIONAL UNIVERSITY

# 목 차

I. 들어가는 말 .....	1
II. 신 존재 증명의 역사적 고찰	
1. 아우구스티누스의 영원한 진리로부터의 증명 .....	5
2. 안셀무스의 존재론적 증명 .....	8
3. 보나벤투라의 생득적 증명 .....	12
4. 둔스 스코투스의 무한성의 증명 .....	15
III.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 존재 증명	
1. 운동의 제일원인에 의한 증명 .....	22
2. 능동인에 의한 증명 .....	26
3. 필연적인 존재에 의한 증명 .....	28
4. 완전성의 단계에 의한 증명 .....	30
5. 목적론에 의한 증명 .....	33
IV.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 존재 증명의 의의	
1. 실재론적 증명과 경험적 정신 .....	36
2. 이성의 힘에 대한 신뢰 .....	38
3. 초월을 향한 인간 정신의 지향성 .....	39
V. 나가는 말 .....	42
VI. 참고문헌 .....	45
Abstract .....	48

## I. 들어가는 말

신(神) 존재에 관한 논의는 철학사 초기부터 있어온 오래된 논의 가운데 하나이다. 희랍 초기에 주어진 존재에 관한 문제나 ‘무한자(아페이론)’에 대한 문제는 ‘신 존재’의 문제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이며, 이후 플로티노스의 ‘일자’ 개념을 거쳐 중세에는 철학적 작업에 빼어놓을 수 없는 보편적인 문제가 되었다. 이후 근대철학에서는 신에 관한 논의가 절대이성 혹은 범신론에 대한 논의로 이행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하였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세상 모든 존재자들의 근거가 되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물음으로 철학을 시작하였다. 탈레스는 물, 아낙시만드로스는 무한자, 아낙시메네스는 공기가 아르케라고 생각하였고, 파르메니데스는 만물의 궁극적 근거는 ‘존재’라고 주장하였다.<sup>1)</sup> 파르메니데스는 이 세계에는 불변하는 것만이 존재하며 변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는데, 플라톤은 이데아를 불변하는 존재로 그리고 플로티노스는 ‘일자’를 모든 변하는 것의 변치 않는 원리로 생각하였다. 마찬가지로 중세 그리스도교에서는 “신은 불변한다(*Quod Deus est immobilis*)”<sup>2)</sup>는 사유를 가지고 있었다.

불변하는 존재의 원인이자 근거인 플라톤의 선의 이데아나, 아리스토텔레스의 우주의 제일원인 등은 그럼에도 그리스도교의 ‘신(Deus)’의 개념과는 근본적인 차이를 가지는 것이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창조주로서의 그리스도교의 신 개념은 플로티노스의 ‘일자(一者)’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플로티노스는 “세계는 일자로부터 끊임없이 유출되어 나오는 것이며 모든 것은 일자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sup>3)</sup>고 하였다. 그럼에도 플로티노스의 ‘일자’는 그리스도교의 신 개념과는 차이를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플로티노스의 일자론에서 모든 실재는 최고 원리로부터 흘러나오는 과정이겠지만, 이는 일자의 자유로운 창조 행위가 아니라 그 필연적인 법칙으로부터 흘러넘치는 유출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중세의 철학자들은 신을 ‘인격적인 창조주’로 생각하였지만, 그러나 철학적 지평

1) “있는 것을 넘어선 것은 있지 않은 것이다. 있지 않은 것은 무(無)이다. 따라서 있는 것은 하나이다.” 김인곤 외, 『소크라테스 이전 철학자들의 단편 선집』, 아카넷, 2013, 298쪽.

2) 토마스 아퀴나스, 정의채 옮김, 『신학대전』 1, 9문제, 1절, 407쪽.

3) 플로티노스, 조규홍 옮김, 『플로티노스의 엔네아데스 선집』, 누멘, 2009.

에서 신존재에 대한 개념은 여전히 과거의 철학자들의 사유를 답습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존재 증명의 5가지 길’인데, 이는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 원리들을 통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논증이라고 할 수 있다.

철학사 안에는 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유신론적인 철학자들과 이를 부정하는 무신론적인 철학자들이 항상 등장하였는데, 이는 현대철학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일상에서 극단적 무신론자이거나 아니면 신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쉽게 만날 수 있다. ‘파스칼의 내기’<sup>4)</sup>라는 잘 알려진 이론에서 파스칼은 신이 존재한다는 것에 패를 걸어야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의 일상인들에게 있어서 ‘신에 대한 사유’는 천차만별이며, 동일한 세계, 동일한 시대를 살면서 이토록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이 오히려 인간 존재의 신비를 말해 주는 것 같다.

종교의 영향력이 가장 지대했던 중세시대에는 대다수의 철학자들이 나름의 방식으로 신 존재를 증명하고자 시도하였는데, 이는 계시에 의존하지 않고 이성적으로 신의 존재를 증명하고자 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신에 대한 관념이 생득적인 관념은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신에 대한 관념이 여전히 다양한 논란을 야기하고, 여전히 수많은 무신론자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신의 존재를 긍정하는 이들은 인간의 의식은 본성적으로 신을 지향하며, 그 존재를 파악하고자 하는 능동적인 지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러한 지향성이 항상 분명한 것도 아니며, 전혀 의심을 동반하지 않는 명석 판명한 진리도 아니다. 따라서 신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탐구해 본다는 것은 의의 있는 일이다.

4) 파스칼은 『팡세』에서 ‘신이 있다 혹은 없다’ 내기를 한다면 신이 있다는 것에 거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한다. 왜냐하면 이성적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지만, 이길 확률은 반반이기 때문이다. ‘신이 있다’에 거는 경우 이긴다면 모든 것을 얻게 되지만, 지는 경우 역시 아무 것도 잃지 않게 된다. 그래서 손해는 없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는 다르다. 만약 생전에 신을 믿었다가 죽은 뒤에 신을 만난다면 그는 축복을 받을 것이다. 혹시 신이 없어도 손해는 없다. 반대로 생전에 신을 믿지 않았는데 죽은 뒤에 신이 없다면 아무 것도 아니다. 그런데 만약 신이 있다면 불행해질 것이다. 하지만 인간의 이성으로는 어느 쪽이 옳은지 판단할 수 없어서 주저하게 된다. 이것이 어느 쪽을 선택하든 두려움이 생기는 이유라고 한다. 결국 우리는 신을 믿는 데서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신이 있는지 없는지를 의심하는 데서 두려움을 느낀다. 파스칼은 이 점에 대해 사람들이 모두 신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즉, 신을 믿는 사람은 신을 잃을까 두려워하고 믿지 않는 사람은 신을 만날까 두려워한다고 한다. 블레즈 파스칼, 이환 옮김, 『팡세』, 민음사, 2013, 181~184쪽.

본 논문에서는 먼저 중세 대표적 철학자들의 신 존재 증명을 간략히 살펴본 다음, 토마스 아퀴나스의 증명을 살펴 볼 것이다. 이는 다른 중세의 철학자들의 논증과는 다른 토마스 아퀴나스의 증명의 특성 즉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적인 원리들에 의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추론에 의한 증명이라는 ‘지성주의적인 특성’을 부각시키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신의 존재를 증명하는데 있어서, 인간 내면의 영원한 진리로부터 증명하고 있으며, 잘 알려진 안셀무스의 존재론적 증명은 필연적으로 존재함을 포함하는 ‘가장 큰 존재’라는 개념으로부터 신의 존재를 증명하고 있다. 보나벤투라는 신에 대한 관념이 인간의 영혼에 각인되어 있다고 설명하였으며, 그리고 둔스 스코투스는 존재의 무한성으로부터 신이 존재를 증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이들의 증명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구분 되는데, 하나는 인간의 영혼 혹은 내면에 존재하는 단서들을 통한 것이며, 다른 하나는 인간이 존재에 대해서 가지는 관념으로부터 증명하는 방식이다. 반면 토마스 아퀴나스는 경험적인 세계 속에 드러나는 자연현상이나 세계현상에 대한 법칙들(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적인 원리들)을 통해서, 이성적인 추론과 논리적인 사유를 통해서 신의 존재를 증명하고 있다. 우리는 본 논문의 제3장에서 이러한 토마스 아퀴나스의 경험적이고 실재론적<sup>5)</sup>인 증명의 방법들을 분석하고, 제 4장에서는 그 철학적 의의를 도출하고자 할 것이다.

토마스 아퀴나스의 증명은 일반적으로 “신 존재 증명의 다섯 가지 길”이라고 알려져 있다. 이 다섯 가지 길이란, 1)운동의 제일원인에 의한 증명, 2)능동인에 의한 증명, 3)필연적인 존재에 의한 증명, 4)완전성의 단계에 의한 증명, 5)목적론에 의한 증명인데, 이는 우리가 세계와 자연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경험하게 되는 구체적인 사실들에서 출발하여 왜 신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 그리고 신은 어떻게(혹은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는 것인지를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다.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 존재 증명을 분석하고 있는 본 논문의 궁극적인 목적은

5) 여기서 경험적이고 실재적이라는 말의 의미는 계시에 근거하거나, 수학적 원리나 관념적 추론에 의한 합리적인 설명이 아닌, 현실에서 관찰 가능한(경험 가능한) 자연적인 현상들(자연법칙)이나 인간 현상으로부터 출발하고 있으며, 또한 이데아를 가정하고 이로부터 현상을 설명하는 플라톤식의 가정이 아닌,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의 원리들에 따라 실재하는 존재자들의 원리로부터 추론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앎의 원리인 이성을 통해 무한자와 유한자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고 초월자를 향한 인간 정신의 지향성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증명을 통해서 토마스 아퀴나스 및 현대 토미즘들이 생각하는 인간의 지성적 특성, 즉 근본적으로 절대자를 추구하는 형이상학적 지향성을 가진 인간 지성의 특수성에 대해 토미즘의 사유를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다.

## II. 신 존재 증명의 역사적 고찰

중세철학은 곧 그리스도교 철학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중세는 그리스도교 문화가 융성한 시대이다. 일반적으로 중세 철학자들의 사유의 기저에는 신의 존재가 그들의 세계관의 기초처럼 놓여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신에 관한 논증은 그들의 철학적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였고, 각각의 철학자들은 자신만의 논리와 사유를 통하여 신 존재를 증명하고자 시도하였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아우구스티누스에서 둔스 스코투스에 이르기까지 각 철학자들의 신 존재 증명의 원리를 간략하게 이해하고자 할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그들 사유의 특성과 사상의 기초를 이해하는 것이 되며, 나아가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 존재 증명과의 차이점을 부각시켜주게 될 것이다.

### 1. 아우구스티누스의 영원한 진리로부터의 증명

아우구스티누스는 『고백록』과 『참된 종교』 등에서 필연적이면서 영원한 진리의 근원을 자신의 정신 속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하였다.<sup>6)</sup> 그는 진리는 감각적인 경험에 있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렇다면 마음속에 인식되는 진리는 어떻게 우리에게 드러나게 될까? 아우구스티누스는 신플라톤주의를 통해 받아들인 플라톤 철학에서 ‘상기’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설명한다. 우리의 영혼은 육체라는 감옥에 갇히기 이전에 영원한 진리의 세계인 이데아계에 존재했기 때문에, 이를 다시 상기해내기만 하면 영원한 진리인 이데아를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이 플라톤의 주장이다. 이 개념을 받아들인 아우구스티누스는 상기 대신 ‘현재의 기억’<sup>7)</sup>을 내세우며 플라톤처럼 과거에 관련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현재 내면에 있는 것에

6) 아우구스티누스는 신적인 것들을 마음 깊은 곳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주님은 안에 계셨지만, 나는 바깥에 있었으며, 나는 저기 바깥에서 주님을 찾았나이다. 추한 모습으로 나는 주님이 만드신 사랑스러운 것들 가운데로 조심성 없이 돌진하였나이다. 주님은 나와 함께 계셨지만 나는 주님과 함께 있지 않았나이다.” 아우구스티누스, 김기찬 옮김, 『고백록』, 제10권 27장,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11, 277쪽. “밤을 나가지 마라. 그대 자신 속으로 돌아가라. 인간 내면에 진리께서 거하신다.” 성염 옮김, 『참된 종교』 39장 72절, 165쪽.

7) 플라톤은 진리(참된 것)을 아는 것을 이미 이데아를 알고 있으며, 잊어버린 이데아를 기억하는 것(상기하는 것)으로 설명하지만, 아우구스티누스는 과거의 경험과 체험으로부터 획득된 ‘현재의 기억’으로부터 진리를 이해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정신을 집중하여 탐구해야 한다고 한다. 사람들 각자의 마음이 인식하는 여러 진리들은 모든 진리의 근원이 되는 진리 자체의 빛을 받아서 우리에게 드러나게 되는데, 감각적인 사물을 인식하기 위해서 태양빛이라는 자연광이 필요한 것처럼 불변하는 이성적 인식 대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신적인 빛의 조명이 필요하다고 한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자신이 진리에 대한 기억을 발견함을 통해 신을 발견했다고 고백한다.

내가 주님에 대하여 배웠던 날로부터 내 기억에 이미 보존하고 있었던 것을 제외하고는 주님에 관한 것을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였나이다. 이는 내가 진리를 발견한 곳에서 진리이신 나의 하나님을 발견하였던 것이니이다. 이것을 배운 때로부터, 나는 결코 잊지 않았나이다. 그래서 내가 주님에 관하여 배운 시간 이래로 주님은 내 기억에 거하셨으며, 바로 거기서 나는 주님을 기억할 때마다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을 기뻐하나이다. 이것들은 나의 거룩한 즐거움들이니, 주님이 나의 궁핍을 생각하사 그 궁핍으로 내게 베푸신 것들이옵나이다.<sup>8)</sup>

즉, 외부세계에 대한 감각경험이 산출하지 못하는 진리를 나의 내면에서 발견할 수 있으니, 이 진리를 낳는 신은 (최소한 신성한 빛은) 나의 내면에 있음이 분명한 것이라고 한다. 그는 플라톤의 상기설처럼 따로 외부성을 전제하지 않고 인간 내면 가장 깊은 곳에서 주관을 초월한 것, 우리의 이성도 초월하는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고 한다.<sup>9)</sup> 플라톤의 인식론적 성향에 비해 훨씬 더 능동적이고 주관주의적이다.

모든 사람은 행복을 추구한다. 아우구스티누스에 있어서 인간이 행복과 진리에 대한 기억을 지닌 채 이것들을 추구한다는 사실은 궁극적으로 그가 ‘신’을 추구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 된다. 참된 행복은 진리를 아는 것에서 주어지며, 신은 바로 인간의 영혼을 움직이고 있는 행복과 진리에 대한 열망을 참되게 실

8) 여기서 ‘내 기억에 이미 보존하고 있었던 것을 제외하고는 주님에 관한 것을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한 것은 외부세계에 대한 감각경험으로는 진리를 발견할 수 없음이 분명한 것임을 말하는 것이다. 아우구스티누스, 김기찬 옮김, 『고백록』, 10권 24장,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11, 275쪽.

9) “우리들은 모든 불완전한 것들 한복판에서 완전한 것을 접하게 되고, 상대적인 것들 한복판에서만 초월적인 것(supra)을 접하게 된다. 바로 이렇게 해서 우리들은 신에게 부딪히게 된다.” 아우구스티누스, 성염 옮김, 『참된 종교』 31장 57절, 분도출판사, 2011, 135쪽.

현시어나가는 과정 속에서 깨닫게 되는 존재이다. 참된 행복과 진리를 성취하기 위해 노력하다보면 결국 신에게 이르는 길로 들어서게 된다는 것이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가장 깊은 내면으로 들어가면 절대적이고 필연적인 진리인 신을 만나게 된다고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인간은 자기의 영혼적-정신적인 삶의 작용, 즉 사고·감정·의지 속에서, 영원하고 변치 않고 필연적인 진리들을 발견한다. 사람들은 이 진리들을 보지 못하고, 무시하고, 또 이것들에 거역하는 일도 가끔 한다. 그러나 진리는 이런 것과는 상관없이, 항상 인간정신의 재판관이요, 지도자이다. 진리는 공간과 시간 안에 있지 않으며, 도대체 사라져 버릴 인간의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 진리에 있어서 다른 초인간적이고 초시간적인 존재가 인간 안에 들어오게 된다.<sup>10)</sup>

아우구스티누스는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무신론자에게 증명하기보다는 오히려 영혼이 자기 자신 안에서 체험할 수 있는 신, 즉 살아 있는 신을 모든 피조물이 어떻게 나타내고 있는가를 증명하려고 한다. 최고의 존재가 있다는 것을 순전히 지적인 동의에 의해서 인정하기보다는 그 진리를 주관적으로 느끼는 것이 더 나은 일이라고 한다.<sup>11)</sup>

아우구스티누스는 신을 그것 없이는 불완전한 것이 생각될 수도 없을 그런 완전한 것으로 모든 진리와 모든 가치의 근원이라고 생각하였다. 신은 우리 영혼에 내재하는 진리의 근원이므로, 신을 찾고자 한다면 굳이 밖으로 눈을 돌리려 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영혼 속으로 통찰의 눈을 돌려야 한다고 강조한다. 외적인 것으로부터 내면적인 것으로, 그리고 열등한 것으로부터 우월한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 신에게로 가는 길이라고 아우구스티누스는 이해한다.

우리가 후에 본격적으로 탐구할 토마스 아퀴나스가 신의 존재를 이성적으로

10) 아우구스티누스, 박일민 옮김, 『자유지의론』, I, 12장 3절, 102쪽.

11) “특별히 강하고 살아 움직이며 건전한 시력(視力)을 가진 사람이, 약한 눈이 즐기고 있는 모든 것들에게 빛을 쏟아대는 태양 자체를 바라보기를 제일 좋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정신의 강하고 생명력이 넘치는 눈길은, 많은 불변의 진리들을 확실한 인식을 가지고서 바라본 뒤에는, 모든 진리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진리 자체에로 향하게 된다. 우리들의 정신은 이 진리에 매달림과 동시에, 다른 진리는 잊어버리게 되고, 동시에 가장 높은 신의 진리 속에서 다른 진리들을 즐기고 소유하는 것을 기뻐하게 된다.” (아우구스티누스, 박일민 옮김, 『자유지의론』, I, 13장 36절, 105쪽.)

증명하려 했다면 아우구스티누스는 신에 대해 알기 위해 믿기를 주장한 것이다. 인간의 내면성<sup>12)</sup>을 바탕으로 한 아우구스티누스의 설명은 오늘날까지도 그리스도교 전반에 현저한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충분한 설득력이 있다.

## 2. 안셀무스의 존재론적 증명

아우구스티누스와 마찬가지로 안셀무스 역시 진리를 탐구하기 위해 신앙과 이성 모두 사용했다. 그는 신앙이 참되기 위해서는 신앙이 우선이되 반드시 이성이 뒤따르면서 사람들의 믿음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안셀무스는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거부할 수 없는 것에서 신 존재 증명의 출발점을 찾아 『모놀로기온』에서 3가지로 증명한다. 첫 번째 증명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다양한 선은 공통적인 어떤 것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이 그것에 관심을 기울이기만 하면 누구에게나 발견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마치 다양한 인간이 있지만 관심을 가지면 공통분모인 인간성을 알 수 있는 것과 같은 원리이다. 우리는 다양한 선 안에는 공통적인 선을 발견할 수 있다. 모든 좋다는 것은 그것이 보다 더 포괄적인 좋음에 의존해서만 가능하다. 모든 선(bonum)은 개별적으로 보다 포괄적인 선에 대해 존재론적인 의존관계에 놓여 있다. 다양한 개별적인 선은 좀 더 포괄적인 목적의 선으로, 또 그것은 더 포괄적인 선으로 관계되어진다. 최종적으로 가장 최고에 위치한 최고선이라는 개념이 필요하다. 다른 것을 통해 좋은 어떠한 선도 그것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최고선이다. 그것은 각각의 선이 그것을 통해 좋은 것이 되는,

12) ‘내면성은 신(존재)이 존재하는 모든 것의 존재함의 근거(지반)라는 차원에서 이해되는 내적인 것이다. 이는 ‘존재론적인 지반으로서의 기저, 혹은 근거’를 말하는데, ‘심오한 것’이란 의미를 가진다. 토마스 아퀴나스와 차이점은 실체적인 것이 보다 우유적인 것에 대해 ‘내적인 것’이라는 관점에서인데, 아우구스티누스는 진리자체(신적인 진리)를 다른 개별적인 진리들에 대해 보다 내적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인간실존의 공허를 채워주는 내면의 풍요’ 혹은 정신적인 것’으로 이해한다. 반면 토마스 아퀴나스는 존재하는 모든 것을 유기적인 통일체로 고려하면서 보다 실체적인 것(고유한 것)이 보다 내적인 것으로, 관계성을 통해 내면성이 형성되기 보다는 인간이 보다 내면적이 되면서 보다 타자에로의 열림이 가능하게 되고, 내면성을 통해서 관계성이 깊어지고 풍요로워진다고 이해하고 있다. 토마스는 만일 신의 존재방식을 단순히 나의 존재에 내재하는 형식으로만 말해버린다면 인간영혼의 기원에 있어서는 논리적인 모순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초월성을 동반한다고 이해한다.’ 이명곤, 「중세철학에서 내면성의 의미」, 『중세철학』, 한국중세철학회, 2009, 2쪽.

바로 그 추구되던 일자(一者)이며 신과 동일한 것이다. 안셀무스는 가장 큰 최고의 선이 필연적이라며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모든 선들은 선 그 자체인 어떤 것 하나를 통해 선하기 때문에 그것이 최고의 선이라는 사실이 발견된 것처럼, 필연적으로 어떤 것이 가장 큰 것이라는 결론도 나온다. 큰 것들은 무엇이든지 큰 것 그 자체인 하나의 어떤 것을 통해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안셀무스는 어떤 물체처럼 공간적인 크기를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같이 크면 클수록 더욱 좋고, 값진 것을 말하고자 한다. 그리고 가장 큰 것이 최고선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것이 최대이며 최선, 즉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 중의 최고라는 사실은 필연적이다.<sup>13)</sup>

안셀무스의 두 번째 증명은 자신만이 가장 위대하며 모든 것 중의 최고인 ‘어떤 것’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어떤 것을 통해 존재하거나, 무를 통해 존재한다. 그러나 무를 통해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예를 들어 나는 부모에 의해, 부모는 조부모에 의해 존재한다. 존재하는 모든 것의 근거는 하나이거나 여럿이다. 그러나 그 근거가 여럿이라면, 그것들은 자신들을 존재하게끔 해주는 하나의 어떤 것과 관계를 맺고 있거나, 이 여럿이 각각 그 자체를 통해 서로 관계를 맺으며 존재해야 한다. 그러나 이 여럿이 하나를 통해 존재한다면, 모든 것은 이미 여럿을 통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럿의 근거가 되는 하나를 통해 존재하는 것이다. 만일 이 여럿이 각각 그 자체를 통해 존재한다면, 당연히 스스로 존재하기 위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하나의 힘과 그 자체를 통해 존재하는 본성과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의심의 여지없이 그들은 스스로 존재한다는 사실의 근거가 되는 이 하나를 통해, 존재하게 된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의 유일한 원인, 즉 ‘자신은 그 자체로 존재하며 그것을 통해 존재하는 모든 것과 구별되는 동일한 것’을 근거로 존재한다. 그러므로 최고선, 최대의 것,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 중 최고인 어떤 것은 필연적으로 존재한다며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은 이 하나를 통해 존재하므로, 의심의 여지없이 이 하나

13) 캔터베리의 안셀무스, 박승찬 옮김, 『모놀로기온』, 아카넷, 2014, 2장, 36쪽.

는 자기 자신을 통해 존재한다. 다른 것은 무엇이든지 자신과 다른 어떤 것을 통해 존재하지만, 이것만은 자기 자신을 통해 존재한다. 그러나 다른 것을 통해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른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고, 유일하게 자신을 통해 존재하는 것>보다 덜 훌륭하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통해 존재하는 것은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것(maxime omnium)이다. 14)

세 번째 증명은 다른 어떤 것도 능가할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한 어떤 본성이 존재한다<sup>15)</sup>는 것이다. 안셀무스에 따르면 사물들은 동일하게 완전성을 내포하고 있지 않다. 모든 사물들은 단계에 따른 상이함을 통해 구분된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나무보다 고양이가 우월하고, 고양이보다는 사람이 우월하다. 그래서 본성들 중에서는 어떤 하나가 다른 것들보다 더 낫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성적으로 그 본성들 중에서 그것보다 더 높은 것이 없을 정도로 뛰어난 어떤 것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만일 그러한 단계가 무한해서, 거기서 그것을 뛰어넘는 어떠한 것도 발견될 수 없는 더 이상 높은 단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다양함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성질을 지닌 것은 존재하는 모든 것들 중 최고인 본성이 존재한다. 이 세 번째 증명은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 존재 증명의 네 번째 방법과 유사하게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만일 여러 본성들 중 자신들보다 더 훌륭한 것이 존재하지 못할 만큼 훌륭한 것이 존재한다면, 이는 자기 자신들을 통해서나 다른 것을 통해서 존재하지 못하며, 결코 그런 본성을 지닌 것이 여럿일 수도 없다. 따라서 다른 것들보다 못하지 않고, 월등한 본성은 유일무이하다는 사실만이 남는다. 그런데 그런 성질을 지닌 것은 존재하는 모든 것 중 최대이자 최상의 것이다. 따라서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 중 최고인 본성이 존재한다. 16)

그렇지만 안셀무스는 『모놀로기온』에 나오는 세 가지 경험적인 사실에서 출발하는 증명에 완전히 만족하지 못했다. 그것이 경험적인 사실을 부정하거나 신뢰하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증명의 힘을 갖지 못하고 지나치게 장황해 보였기 때문이다. 그는 신 존재에 대한 숙고에서 어떤 전제도 없이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탐색했고, 『프로슬로기온』 2~4장에 제시된 “그것보다 더 큰 것이 생각될 수 없

14) 캔터베리의 안셀무스, 박승찬 옮김, 『모놀로기온』, 아카넷, 2014, 3장, 39쪽.

15) 위의 책 4장, 41쪽.

16) 위의 책 4장, 43쪽.

는 어떤 것”이라는 개념이 그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이를 통해 그는 더 이상 경험적인 사실에 의존하지 않는 존재론적 신 존재 증명을 제시했다.

어리석은 자도 내가 <그것보다 더 큰 것이 아무것도 생각될 수 없는 어떤 것 (aliquid quo maius nihil cogitari potest)>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으면, 그가 들은 것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해한 것은 그의 지성 속에 존재합니다. 비록 그가 그것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중략) 그리고 확실히 <그것보다 더 큰 것이 생각될 수 없는 어떤 것>은 단순히 지성 속에만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그것이 지성 속에만 존재한다면, 실제로도 존재하는 것이 생각될 수 있고, 이것은 [지성 속에만 존재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이기 때문입니다.<sup>17)</sup>

어떤 사람이 신을 <그것보다 더 큰 것이 생각될 수 없는 어떤 것>이라 규정할 수 있고 신의 실존을 부인하는 사람도 이 설명을 인정할 수 있다면, 그와 동시에 <그것보다 더 큰 것이 생각될 수 없는 어떤 것>의 실제 자체가 <생각되기만 하고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보다 더 완전한 것이라는 사실을 동의할 것이다. 이 경우 그가 <그것보다 더 큰 것이 생각될 수 없는 어떤 것>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 된다.

<필연적인 방식으로 존재하는 것>은 <우연적으로 존재함으로써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는 어떤 것>보다 더욱 완전할 것이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것이 생각될 수 없는 어떤 것>이 만일 우연적인 존재라면, 우연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넘어서서 아직도 더욱 완전한 것, 즉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생각될 수 있다. 그러므로 <그것보다 더 큰 것이 생각될 수 없는 어떤 것>은 우연적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존재해야만 한다.

물론 안셀무스가 제시하는 <그것보다 더 큰 것이 생각될 수 없는 어떤 것>에 대한 개념은 우리에게 임의적으로 떠오르는 상상 속의 개념과는 다른 것일 것이다. 그러나 안셀무스가 이 표현에 어떻게 도달했으며 이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는 점과 이것에 대한 증명이 모순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은 것은 그의 한계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또 이 표현이 왜 반드시 신

17) 캔터베리의 안셀무스, 박승찬 옮김, 『프로슬로기온』, 아카넷, 2014, 227쪽.



과 동일시되어야 하는가를 분명히 밝히지 않는 것도 한계<sup>18)</sup>라고 할 수 있다.

### 3. 보나벤투라의 생득적 증명

플로티누스에 이어 아우구스티누스는 신을 근원적인 빛이라 생각하고 이 광원에서 쏟아져 나오는 광선의 양태에 의해서 여러 가지 존재를 설명하였다. 스콜라 철학 전성기에는 보나벤투라가 이 주장을 이어 그의 핵심 사상을 빛과 조명으로 설명하려고 시도한다. 신은 근원적 빛이며 그의 활동이 바로 빛의 활동이다. 이런 신적 조명을 통해 우리의 정신에는 신에 대한 생득적 지식이 각인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보나벤투라는 신의 존재에 이르는 길을 세 가지로 설명한다. 첫 번째 길은 신의 존재가 모든 영혼에 각인된 의심할 수 없는 진리임을 보여주는 것이고, 두 번째 길은 신 존재가 이 세계의 피조물들이 비춰주는 의심할 수 없는 진리임을 보여주는 것이며, 마지막 세 번째 길은 신 존재가 그 자체로 가장 확실하고 자명한 의심할 수 없는 진리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는 각각의 길을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첫 번째 길은 신 존재가 모든 이성적인 영혼들에 각인된 의심할 수 없는 진리임을 보여주는 논증들로 구성되어있다. 보나벤투라는 인간의 의지가 최고의 존재 즉 신을 향한다고 파악한다. 따라서 만약 인간의 마음속에 신 존재에 대한 인식이 없다면 이러한 의지의 향방을 설명할 수 없을 것이다. 그는 신의 존재에 대한 우리의 생득적 인식은 신과 영혼의 조화에 기초하고 있는 것으로서 파악한 것이

---

18) 안셀무스의 증명은 늘 비판자와 마주했다. 첫 번째가 동시대인 가운데 한 명인 가우닐로(Gaunilo)수사이다. <어리석은 자를 변호하여> (In Defense of the Fool)라는 소논문에서 두 가지의 반론을 제기한다. “첫째로, 그는 자신의 정신 안에 그것보다 더 큰 것이 아무것도 생각될 수 없는 어떤 존재에 대한 관념을 실제로 갖고 있다는 것을 부인한다. 두 번째로 우리가 그것보다 더 큰 것이 아무것도 생각될 수 없는 어떤 존재에 대해 생각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존재가 실제로 실존한다는 것이 아니라, 사유 속에서만 존재한다는 것이다. 안셀무스는 이에 대해 우리는 덜 완전한 대상에 대한 지식에서 출발해서 가장 완전한 존재에 대한 관념으로 우리의 정신을 끌어올리는 데서 그분에 대한 관념을 형성하게 된다. 또 덜 선한 모든 것은 더 큰 선과 유사하기 때문에 덜 선한 것으로부터 더 선한 것으로 상승함으로써 우리가 그것보다 더 큰 것이 아무것도 생각될 수 없는 존재에 대한 중요한 관념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합리적인 인물에게도 자명하다고 답변한다.” 아먼드 A 마우러, 조흥만 옮김, 『중세철학』, 서광사, 2007, 80~81쪽.

다. 그런데 보나벤투라는 이 신 존재에 대한 지식이 생득적이라면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이 신 존재를 부인하는가에 대해 신 존재에 대해 의문이 생겨나는 것은 신의 존재에 대한 생득적 지식이 신의 본질에 대한 인식과는 별개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신 존재에 대한 부정은 신의 본질에 대한 우리의 그릇된 개념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신의 개념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기초로 하여 신을 ‘인간보다 우월하며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어떤 존재’<sup>19)</sup>로 생각한다든지, 잘못된 판단이나 잘못된 추론을 통해 올바른 결론을 도출해내지 못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무능력 때문이라고 한다.

코플스톤<sup>20)</sup>에 따르면, 첫 번째 길을 통해 알게 된 신 존재에 대한 인식은 명백한 것이 아니라 암묵적인 것인데, 앞서 살펴본 바처럼 신 존재가 인식자 편에서의 결함으로 인해 주관적으로 충분히 의심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첫 번째 길을 통해 알려진 신 존재에 대한 지식은 신의 존재에 대한 “희미한 인식(dim awareness)”이라 말할 수 있다.<sup>21)</sup>

두 번째 길은 피조물에 대한 감각적 경험을 통해 신에 대한 지식을 얻는다고 보다는 감각적 경험을 통해 알게 된 피조물에 대한 숙고를 통해 그것에 함의되어 있는 신의 발자취(vestigia)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다. 후천적인 존재를 통해 필연적이고 절대적인 존재를 알 수 있다며 보나벤투라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후천적인 존재가 있다면 또한 선천적인 존재가 있다. 왜냐하면 후천적인 존재란 선천적인 존재로부터만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후천적인 것들로 이루어진 우주가 있다면 반드시 최초의 존재가 있어야만 한다. 따라서 선천적인 것과 후천적인 피조물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피조물로 이루어진 우주는 필연적으로 제일원리의 존재를 함의하며 또한 선포한다.<sup>22)</sup>

두 번째 길에서 보나벤투라가 전개하고 있는 논증은 우리가 피조물로부터 후

19) 이태하, 「보나벤투라의 신 존재 증명」, 『기독교철학』 4권1호, 한국기독교철학회, 2007, 78쪽.  
 20) 코플스톤(Frederick Charles Copleston) :1907~1994, 런던 대학교 철학과 교수로 재직. 주요 저서로 <프리드리히니체: 문헌철학자>(1942), <중세철학>(1952), <현대철학 :논리실증주의와 실존주의에 대한 연구>(1956), <종교와 철학>(1974) 등이 있다. 위키백과  
 21) 이태하, 「보나벤투라의 신 존재 증명」, 『기독교철학』 4권1호, 한국기독교철학회, 2007, 79쪽.  
 22) 이태하, 「보나벤투라의 신 존재 증명」, 『기독교철학』 4권1호, 한국기독교철학회, 2007, 80쪽.

천성, 의존성, 가능성, 상대성, 부분성, 결합, 우연성, 잠재성, 복합성 등의 관념을 발견할 때마다 우리는 항상 선천적이고, 독립적이고, 필연적이고, 절대적이고, 전체적이고, 완전하고, 현실적이며 단순한 어떤 존재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음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두 번째 길은 감각적 세계에 속한 피조물에 대한 우리의 인식 속에 함의되어 있는 신에 대한 생득적 관념을 밝혀내는 것이다.

세 번째 길은 신 존재가 그 자체로 확실하고 자명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우리의 정신은 그 자신과 피조물을 넘어 의심할 수 없는 진리로서 신 존재를 인식한다고 한다. 보나벤투라는 “비록 그 진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마음으로 하여금 하나의 진리만을 인정하도록 하라. 그것은 동시에 제1의 진리의 필연성을 주장한다. 왜냐하면 그런 제1의 진리가 없다면 여타의 진리도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며, 또한 제1의 진리는 오로지 신밖에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식 있는 자는 분명한 방식으로 진리, 곧 ‘신은 존재 한다’ 는 진리의 필연성과 명백함을 보게 된다.”<sup>23)</sup>고 말한다. 이 셋째 방법은 보나벤투라가 모든 사람에게 한결같이 주어져 있는 진리를 정신으로 파악하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증명을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길은 우리가 신 존재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할 적절한 이유를 제시하는 것이고, 세 번째 길은 신 존재를 입증하고자 하는 엄밀한 논증처럼 보인다. 그러나 세 가지 길 전체를 하나의 논증으로 놓고 본다면 엄밀한 논증이라기보다는 보나벤투라에게 신 존재란 인간의 지적인 탐구와 노력과 무관하게 의심할 수 없는 진리임을 보여준다고 말한다.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될 수 없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될 수 있는 것보다 더 위대하다. 신은 그보다 더 위대한 것을 생각할 수 없는 존재이다. 그러므로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될 수 없다.<sup>24)</sup>

보나벤투라는 「삼위일체의 신비」 article 1, 29번에서 “최고선이 최고선이라면 최고선은 존재한다(현실태로 존재한다는 의미에서). 마찬가지로 신이 신이라면

23) 원유동, 「보나벤투라의 신존재 논증에 대한 이해」, 『중세철학』 11권, 한국중세철학회, 2005, 82쪽.

24) 이태하, 「보나벤투라의 신 존재 증명」, 『기독교철학』 4권1호, 한국기독교철학회, 2007, 81쪽.

신은 존재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sup>25)</sup> 고 말한다. 그는 이 논증을 통해 우리에게 존재란 신의 완전성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제시해 주고 있다.

“우리는 신을 우리 바깥에서와 우리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위에서도 명상할 수 있다. 우리 바깥에서는 그분이 피조물들 속에 남겨 놓은 흔적들을 통해서 명상하고, 우리 안에서는 우리의 영혼 속에 각인되어 있는 그분의 모상을 통해서 명상하며, 우리 위에서는 우리의 정신 속에 새겨 놓으신 빛을 통해서 명상한다”<sup>26)</sup>는 보나벤투라의 말은 신의 존재란 그 자체로 가장 자명한 진리이며 의심할 수 없는 진리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

#### 4. 둔스 스코투스의 신 존재 증명

둔스 스코투스의 신 존재 증명에서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무한성의 개념(*conceptus infinitas*)이다. 무한성은 신을 가장 잘 특성 지워 주는 근본적인 속성인 동시에 다른 모든 완전성의 근원으로 이해할 수 있다.

무한성(*infinitas*)은 탁월한 완전성(*perfectio eminent*) 혹은 존재의 본질적인 형태를 의미한다. 존재가 자기 안에(*in se*) 잠재적으로 (*virtualiter*) 진리와 선을 내포하고 있는 것과 같이 무한한 존재는 무한성을 근거로 하여 무한한 선, 무한한 진리 그리고 모든 완전성을 내포한다.<sup>27)</sup>

스코투스는 『강의록』 16권에서 가장 탁월하고 가장 완전한 유는 무한하다고 주장한다.<sup>28)</sup> 무한성에 대한 증명은 스코투스에 있어서 최대의 관심사일 뿐 아니라, 신 존재 증명 전체를 묘사하고 있다. 무한한 존재는 한정된 비례를 따라서가 아니라 한정된 혹은 한정가능한 모든 비례를 뛰어넘어 유한한 존재를 능가하는 존재라고 한다. 그러므로 무한성 자체는 어떤 속성보다도 더 큰 본질의 내부적

25) 위의 논문, 82쪽.

26) 소피아 로비기, 이재룡 옮김, 『성 보나벤투라』, 가톨릭대학교출판부, 2001, 153쪽.

27) 유영진, 「요안네스 둔스 스코투스 신론의 존재론적 고찰」, 가톨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89, 117쪽.

28) “무한(*infinitas*)은 더 초월할 수 없는 무한한 개념이기 때문에 무한의 개념은 명백하다. 그리고 진(*verum*), 선(*bonum*)과 같은 존재의 일차적 수동들(*passiones convertibiles*)은 존재의 가장 명백한 특성들이기 때문에 어떤 잠재적 모순도 없다.” 김현태, 『둔스 스코투스의 철학 사상』, 가톨릭대학교출판부, 1994, 246쪽.

형태이다. 스코투스에게 있어서 이 신의 무한성은 신의 절대적인 고유성과도 같은 의미로 이해되고 있다.<sup>29)</sup>

제일존재는 원인을 가지지 않으므로 질료와 형상과 같은 본질의 부분들을 가질 수 없고 우연성을 지닐 수도 없다.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든 합성된 것일 수가 없으며, 본질적으로 단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신은 자기 자신 이외의 어떠한 것에도 필연적으로 의지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신만이 필연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다. 스코투스는 신의 무한성에 대해 신에게 있어서 모든 완전성을 무한하기는 하지만 그것의 형상적 완전성은 그것의 근원이며 기초인 본질의 무한성으로부터 생겨난다고 하며, 신의 전적인 완전성은 신의 본질에 근거하며 신의 본질은 존재의 무한성이라고 이해한다.<sup>30)</sup>

스코투스는 능동성(efficientia), 목적성(finalitas) 및 탁월성(eminentia) 안에서 제일존재의 무한성을 증명해 나간다. 세계에는 존재하지 않던 것이 있게 되는 존재들이 있다. 이런 존재들을 우유(accidens)라고 한다. 그런 존재들은 그들 존재의 원인을 요구한다. 왜냐하면 그러한 존재는 스스로가 원인일 수 없고 무가 그 원인일 수도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스코투스는 첫 번째 논증으로 ‘어떤 것은 영원하지 않다’ 라는 명제를 설정한다. 영원하지 않은 어떤 것은 우연적 존재를 말한다. 그런데 만일 A가 우연적 존재의 원인이라면 그것은 존재하기 위해 다른 원인을 가지거나, 가지지 않을 것이다. 만일 A가 원인이 되었을 경우, A의 원인을 B라고 할 때 무한대로 소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모든 존재는 다른 어떤 존재로부터 유래되는 비영원적인 어떤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자체가 원인되지 않는 어떤 원인이 존재해야 한다.<sup>31)</sup> 다른 존재의 능력으로 존재를 부여하지도 않고 다른 존재에 의해 자신의 존재를 취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제일능동자이다.

또 제일차적인 어떤 것이 존재한다는 것은 목적성으로부터 논증이 가능하다. 존재하는 것은 그 본성상 목적에 적합하다. 어떤 것이 산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산출은 목적을 향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 어떤 것은 또한 자신

29) 유영진, 「요안네스 둔스 스코투스 신론의 존재론적 고찰」, 가톨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89, 146쪽.

30) 김현태, 『둔스 스코투스의 철학 사상』, 가톨릭대학교출판부, 1994, 71쪽.

31) 김현태, 『둔스 스코투스의 철학 사상』, 가톨릭대학교출판부, 1994, 233쪽.

의 결과를 목적으로 이끌 수 있어야만 한다. 뿐만 아니라, 능동인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질서지어진 원인들의 무한한 계열이 거부되었던 것과 같이 목적인에 있어서도 아무 것에도 영향 받지 않는 하나의 궁극적인 목적인이 존재해야 한다. 그런 존재는 다른 어떤 존재로부터 원인되지 않는 제일존재이다. 그 자체의 힘으로 그 본성에 적합하려면 그것이 곧 제일원리이어야 한다.<sup>32)</sup>

또한 스코투스에 의하면 가장 탁월하고 가장 완전한 유(ens eminentissimum et perfectissimum)는 무한하다고 주장한다.

무한(infinitas)은 더 초월할 수 없는 무한한 개념이기 때문에 무한의 개념은 명백하다. 그리고 진(verum), 선(bonum)과 같은 존재의 일차적 수동들은 존재의 가장 명백한 특성들이기 때문에 어떤 잠재적 모순도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존재의 일차적 수동들은 환치될 수 있는 수동들(passiones convertibiles)로서 무한한 자체 유(ens ipsum infinitas)를 내포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러한 것들은 무한과는 구별된다. 왜냐하면 무한성은 그것이 서술되는 존재의 수동과 같은 것이 아니라 존재의 내속적 양태(modus intrinsecus)를 나타내기 때문이다.<sup>33)</sup>

탁월한 면에 있어서 무한성을 지니고 있음이 모순되지 않는 존재는 그 자체로 무한하지 않고서는 절대적으로 완전할 수 없다.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그러한 존재는 유한한 존재일 것이다. 왜냐하면 유한한 존재는 그 완전성에 있어서 무한한 존재를 능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한성은 존재에 모순되는 개념이 아니다. 그러므로 가장 완전한 존재는 무한하다.<sup>34)</sup>

스코투스의 논증은 능동성, 목적성, 탁월성을 가진 어떤 존재가 있다. 이 세 가지 속성은 무한하다. 무한성이 신 존재의 독특한 양태이며, ‘무한 존재(infinite being)’의 관념이야말로 우리가 신에 대해 구성할 수 있는 가장 완전한 것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에 대해 가장 완전한 개념 혹은 가장 완전한 가능성을 갖는 만큼 그 개념이나 존재에 대하여 ‘신은 존재한다’ 라고 하는 명제가 증명된다는 것이다.

32) 위의 책, 241쪽.

33) 위의 책, 246쪽.

34) 유영진, 「요안네스 둔스 스코투스 신론의 존재론적 고찰」, 가톨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89, 154쪽.

우리는 이상 철학자들이 신을 논함에 있어서 간과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받을  
덜고 살아가는 이 세계에 대한 고찰이라는 점을 발견하게 된다. 만일 신이 창조  
주라면 가장 직접적인 신의 결과는 이 세계이다. 이 세계와 세계의 법칙들은 어  
찌면 가장 직접적인 신 존재 증명의 도구들일 것이다. 우리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증명을 통해 이러한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다.

### Ⅲ.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 존재 증명

토마스 아퀴나스는 “신은 그 본성의 탁월성으로 말미암아 만물 위에 있으며, 또한 모든 것의 존재를 있게 하는 원인으로서 만물 안에 존재 한다<sup>35)</sup>” 라고 하며 존재함에 있어서 신으로부터 독립되어 스스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신이 존재한다는 이 명제는 자체에 관한 한 자명한 명제다.<sup>36)</sup>고 하며 신의 존재는 그 자체로 자명한 것이지만<sup>37)</sup> 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이 반드시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원인에 비례하지 않는 결과를 통해서 원인에 대한 완전한 인식을 얻을 수 없다. 그러나 어떠한 결과에서도 원인이 있다는 것이 명백하게 우리에게 논증될 수 있다. 이렇게 우리는 신의 결과들에서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논증할 수 있다. 우리가 그런 결과들을 통하여 신을 그 본질을 따라 완전하게 인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그 결과들에서 논증할 수 있는 것이다.<sup>38)</sup>

순수한 이성적 추론만으로 신 존재를 증명하려 했던 안셀무스의 존재론적 증명과는 달리 토마스 아퀴나스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하게 되는 사실에서 출발하여 이성적인 추론의 도움으로 신 존재 증명을 시도하고 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신학대전』에서 신이 존재하는가에 대해 먼저 묻고, 신이 존재한다는 것은 자명한 것인가, 신이 존재한다는 것은 논증될 수 있는가 질문하면서 제2문제 3절에서 신의 존재함에 관해 다섯 가지 길로 논증하고 있다.

그는 여러 저서에서 신 존재 증명에 대해 논증하고 있다.<sup>39)</sup> 『신학대전』에 나타나는 신 존재 증명의 ‘다섯 가지 길’은 이 문제를 보다 형이상학적 측면에서 다루고 있는 반면 『대이교도대전』에서는 신 존재 증명을 보다 자연적 경험의 측

35) 토마스 아퀴나스, 정의채 옮김, 『신학대전』 I, 8문제, 1절, 377쪽.

36) 토마스 아퀴나스, 정의채 옮김, 『신학대전』 I, 2문제, 1절, 137쪽.

37) “태양 빛이 모든 가시적인 지각의 원리인 것처럼, 신의 빛은 모든 가지적(可知的) 인식의 원리이다. 왜냐하면 신의 빛에서 제일의 그리고 최상의 가지적 빛이 발견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이 존재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알려지는 것일 수밖에 없다.” 토마스 아퀴나스, 신창석 옮김, 『대이교도대전』 I, 64, 153쪽.

38) 토마스 아퀴나스, 정의채 옮김, 『신학대전』 I, 2문제, 2절, 147쪽.

39) 토마스 아퀴나스, 정의채 옮김, 『신학대전』 I, 2문제, 3절, 161~179쪽. 『대이교도대전』 I, 13장, 165~195쪽.



면에서 전개하며 감각적 경험에 근거하여 논하고 있다. 그런데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 존재 증명의 중요성은 자연적 경험의 측면보다는 형이상학적 측면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 이유는 감각적 경험은 그 흔적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신의 실체를 나타내기에는 불충분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감각될 수 있는 것을 넘어서는 것들을 직접 인식할 수는 없다. 감각적 실체(substantia)보다 상위에 있는 것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결과들 안에서 발견되는 유사성을 가지고 추론을 통해 그에 대한 인식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러므로 감각을 초월하는 것을 인식(이해)하기 위해서는 형이상학적 이해가 요청된다. 따라서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 존재 증명의 논증들 중에서도 『신학대전』에서의 논증이 더 무게를 갖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

증명의 방식에서 가장 이상적인 증명방법은 하나의 결과에 대해 그 원인을 추적하는 방식일 것이다. 신의 존재를 증명함에 있어서 신보다 먼저 존재하는 원인을 찾아내 그 원인에서 결과를 증명하는 방식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정의 그 자체에서 신은 모든 것의 제일원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뚜렷한 결과가 있을 때 그것의 원인이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그래서 결과로부터 원인을 증명하는 것이다. 신의 경우에는 결과로부터 원인으로 증명하는 그러한 방법밖에 없다. 즉, 피조물로부터 신에게로 올라가는 방식으로 신 존재를 증명할 수 있을 뿐이다.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는 경험으로부터 출발한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신 존재 증명을 감각경험과 인과율에 근거하여 ‘다섯 가지 길’로 제시한다. 첫째는 운동으로부터의 증명이다. 우주 안에서 경험되는 운동 또는 변화는 가능태(potentia)에서 현실태(actus)로 옮겨가는 것이다. 가능태에서 현실태로 옮겨지는 것들은 그 자체 현실태로 있는 어떤 행위자에 의해서 그렇게 움직여진 것이며, 이런 동자들을 무한히 소급해가면 최초의 동자 즉 신에 이르게 된다. 둘째는 능동인(能動人)으로부터의 증명이다. 원인들과 결과들 사이의 무한 계열의 불가능성에 근거하여 다른 원인에 의해 영향 받지 않는 최초의 제1작용인이 있어야 한다. 셋째는 필연적인 존재로부터의 증명이다. 우연적 존재자들이 실존했다가 사라지는 것을 끊임없이 관찰하게 되면 이 우연적 존재자들을 존재하게 만드는 어떤 필연적인 존재, 혹은 우연적이지 않은 존재가 실존해야 한다. 만일 그런 필연적 존재가 실존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다라면 그 어느 것도 지금 실존할 수 없었을 것이다. 넷째는 완전성의 단계에 의한 증명이다. 세계 속

의 사물들은 완전성의 정도가 다르다. 가장 완전한 ‘최상의 존재인 그 어떤 것’이 존재해야 한다. 이것이 곧 신이다. 다섯째는 목적론적 증명<sup>40)</sup>이다. 자연의 모든 사물들에는 자신들의 목적으로 향하게 해주는 어떤 지성적인 존재가 존재한다.

그러나 이 ‘다섯 가지 길’은 서로 다른 다섯의 논증이라기보다는 단일한 논증의 서로 다른 다섯 가지 방법 혹은 차원이라고 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우리는 이 논증을 통하여 신의 존재 증명 뿐 아니라 동시에 신의 본질에 대해서도 최소한 근본적인 몇 가지는 알 수 있게 된다. 예를 들면 작용자는 어떤 것이든 모두 그 형상을 통하여 작용한다. 따라서 어떤 것이 형상을 갖는 데 따라 작용자로서의 성격도 갖는다. 그러므로 첫째이며 스스로에 의한 작용자는 첫째로, 또 스스로에 의한 형상이다. 그런데 신은 제1능동인이기 때문에 제1작용자이다. 따라서 신은 자기 본질에 의한 형상이며 질료와 형상으로 합성된 것이 아니다.<sup>41)</sup> 또, 신은 어떠한 가능성도 갖지 않는 순수 현실태이다. 신만이 존재와 본질이 일치하는 존재이다.<sup>42)</sup> 그래서 성서에서는 신에 대하여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sup>43)</sup>라고 말하고 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처럼 구체적으로 실재하고 있는 사물들로부터 자신의 사고를 시작한다. 그는 실재하는 세계에서 출발하여 그 존재가 무엇인지, 그것이 어떻게 존재하는지, 그 존재의 조건이 무엇인지를 탐구한다. 더 나아가

40) 목적론적 증명의 논증은 세계의 모든 현상은 합목적적 운행법칙을 따른다. 즉 모든 사물들은 낮은 단계의 목적으로부터 더 높은 단계의 목적을 지향하고 있다. 그리하여 모든 목적들은 마지막 궁극목적에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 이 궁극목적이 곧 신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비판도 있다. 목적론적 증명에 대한 흄(D. Hume)의 비판에 의하면 이 세계의 질서가 반드시 의식적인 계획에 의한 질서라고 장담할 수는 없으며, 이 세계의 질서를 만든 존재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필연성은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연히 그렇게 되어졌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신이 있다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우연이며 이러한 상황에 맞게 진화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전성용, 「신존재증명에 관하여」, 『교수논총』 15집, 서울신학대학교, 2004, 247쪽.

41) 토마스 아퀴나스, 정의체 옮김, 『신학대전』 I, 3문제, 2절, 192~193쪽.

42) “사물의 존재 자체가 그 사물의 본질과 다른 것이라면 그 사물의 존재는 필연적으로 다른 외부적인 것에서 원인 되거나 아니면 그 사물의 본질적 원리(요소)에서 원인 될 것이다. 그런데 사물의 존재가 다만 그 본질적 원리(요소)에서 원인 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 이유는 어떠한 사물도 그것이 원인 된 존재를 갖는 한, 자기에게 자기 존재의 충분한 원인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존재가 그 본질과 다른 사물은 그 사물과 다른 것에서 원인 되어야 한다. 이런 것을 신에 대해서는 말할 수가 없다. 그것은 우리가 신을 제1능동인이라고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신 안에서는 존재와 본질이 서로 다른 것일 수 없다.” 토마스 아퀴나스, 정의체 옮김, 『신학대전』 I, 3문제, 4절, 206~207쪽.

43) 출애굽기 3장 14절.

가 모든 존재하는 것의 존재의 근거로서의 최고 존재 곧 ‘자립적 존재자체’ (ipsum esse subsistens)를 탐구하는 데 자신의 온 힘을 기울인다. 더욱이 그는 이 존재 자체에 대한 탐구를 그리스도교의 창조설과 연결시켜 ‘존재와 본질’에 대한 구분을 명확히 함으로써 자신이 출발점으로 삼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넘어선다.<sup>44)</sup>

## 1. 운동의 제일원인에 의한 증명

아리스토텔레스는 현실적인 세계를 하나의 동적인 것, 질료가 무단히 형상화하는 과정으로 보았으며, 존재하는 모든 사물들은 형상과 질료로 구성된다고 생각하였다. 개별적인 고양이는 고양이의 형상과 질료로 구성되며, 개개의 사물로 존재한다는 것은 질료가 형상으로 한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물은 일정한 형상으로 실현됨으로써 존재하게 됨을 의미한다. 개별적인 고양이는 이미 그것의 형상과 질료를 완벽하게 갖추고 있으며, 따라서 그 구성요소들만으로는 고양이에게 벌어지는 변화를 설명하지 못한다. 이런 측면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형상과 질료를 현실태(actus)와 가능태(potentia)로 구분한다. 모든 운동, 즉 가능태로부터 현실태로의 이행은 현실태에 있는 어떤 원리를 필요로 한다고 말하고 있다.

dynamis (가능태:디나미스)는 다른 사물 안에 있거나 다른 사물 자체 안에 있는 변화의 원리(작용인)를 말한다. (사물 안에 있는) 어떤 능력은 수동의 능력인데 이 능력이 수동적이라고 일컬어지는 까닭은 이 수동적인 사물 속의 물질이 다른 물질의 영향에 의해, 또는 다른 사물 자체에 의해 야기되는 수동적 변화의 원리이기 때문이다. energeia (현실상태:에네르게이아)라는 말은, entelecheia (완성 현실태:엔텔레케이아)와 관련된 뜻으로 쓰이고 있고, 그밖의 뜻으로도 확대되고 있는데, 주로 운동의 뜻이다. 존재하지 않는 사물들에게는 다른 어떤 술어는 주어저도 운동한다(움직인다)는 술어는 주어질 수 없다. <sup>45)</sup>

44) 박승찬, 「그리스도교 사상의 흐름 속에 나타난 신앙과 이성의 조화: 신앙과 이성과 신앙의 빛을 중심으로」, 『신학전망』 183호, 광주가톨릭대학교 신학연구소, 2013, 117쪽.

45) 아리스토텔레스, 『형이상학』, 김천운 옮김, 동서 문화사, 2013, 9권, 255쪽.

운동은 장소 이동, 양의 증가와 감소, 성질 변화, 실체 변화 등 다양하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모든 운동은 어떤 것이 될 수 있는 가능태에서 그 운동의 목적이 이루어진 현실태에 도달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어떤 것도 그것을 향해 움직여지는 것에 대해 가능 상태에 있지 않는 한 움직여질 수 없다. 어떤 것이 현실태에 있다는 것은, 운동이 발생하였음을 의미한다. 그 어떤 것도 동일한 것에 대해 현실태와 가능태에 동시에 있을 수는 없다. 그런데 운동 중에 있는 것은 모두 운동 중에 있는 한, 가능태에 있다. 왜냐하면 운동이 하나의 현실태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의 운동이 완결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관점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은, 움직이고 있는 한, 현실태에 있다. 왜냐하면 그 어떤 것도 현실태에 있는 한에서가 아니라면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불과 같이 현실적으로 뜨거운 것이 뜨거워질 가능태에 있는 나무를 현실적으로 뜨거운 것으로 만들며, 이것을 통해 나무는 움직이며 변화한다. 그러나 같은 것이 같은 관점에서 현실태에 있는 동시에 가능태에 있을 수는 없고, 그것은 다른 관점에서만 가능할 뿐이다. 현실적으로 뜨거운 것은 동시에 가능성으로서의 뜨거운 것일 수 없고 오히려 동시에 찬 것일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가능태가 현실태로 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현실태(움직이게 하는 실질적인 에너지)가 개입되어야 한다.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에 따르면 저절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즉, 현실태 상태에 있는 사물에 의하지 않고는 어떠한 사물도 가능태에서 현실태로 변화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운동은 시작에 앞선 다른 운동에 의해서만 가능해질 수 있다.<sup>46)</sup> 하지만 이렇게 해서 차례차례 거슬러 올라가도 무한소급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결국 다른 것에 의해 움직여지지 않으면서 운동을 시작한 최초의 원동자가 있어야 하며, 모든 사물과 사태의 운동과 변화에는 최종적인 원인이 있기 때문이다. 이 맨 처음에 움직이는 자는 그 자체로서 존재하는 자이며, 순수한 현실태이며, 항상 운동 중에 있는 자여야

46) 아리스토텔레스는 “변화는 잠재적인 존재가 잠재적인 한에 있어서의 현실태이다” (200b5~6)라고 말하고, 또한 “변화는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일종의 현실태라고 말해지며, 그 이유는 현실태가 되는 잠재태가 불완전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함으로써, 변화가 종료되는 시점에도 변화의 과정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 속에 나타난 현실태라는 개념이 변화가 진행 중인 상태인 ‘과정’ 을 의미하는가 또는 변화가 완성되거나 실현된 최종적인 상태인 ‘결과’ 를 의미하는가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다. 유원기,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철학 자연은 헛된 일을 하지 않는다』, 서광사, 2009, 각주94, 124쪽.

한다. 아무런 질료도 없이 진정으로 그 자체로서 존재하고 있는 존재는 꼭 한 가지밖에 없는데, 이것이 곧 움직여지지 않으면서 다른 것들을 움직이는 존재이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를 아래와 같이 논하고 있다.

가능태로부터 현실태로 넘어가는, 목적을 향한 어떠한 운동도 영속적일 수 없다. 그 운동은 현실태에 이르면 정지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최초의 운동이 영속적이라면, 그것은 언제든 어떤 방식으로든 현실태에 있는 목적을 겨냥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그런 목적은 어떤 물체이거나 물체 안에 있는 어떤 힘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런 모든 것은 그 자체로나 우연히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최초의 운동의 목적은 어떤 물체도 아니고 물체의 어떤 힘도 아니다. 그러나 최초의 운동의 목적은 바라는 대상처럼 움직이는 최초의 동자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신이다. 그러므로 신은 물체도 아니고, 물체의 어떤 힘도 아니다.<sup>47)</sup>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끊임없이 움직이며 변화하고 있다. 멀리 보이는 산, 학교, 나무와 꽃, 인간과 동물 등 이 모든 것들이 움직이며 변화하고 있다. 내 앞의 계단이나 내가 손에 들고 있는 책도 시간과 함께 움직이며 변화하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 이러한 운동변화는 우리의 감각작용으로 알 수 있다. 또 이 세계의 어느 것도 스스로를 움직일 수 없으므로, 움직이고 있는 모든 것은 다른 어떤 것에 의해 움직여지고 있음이 틀림없다. 즉 세계가 인과의 사슬이라는 말은 곧 움직임의 원인과 결과의 총체라는 말이다. 여기서 결과는 원인에 의존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움직여지고 있는 자가 움직이게 하는 자에게 의존하고 있는 관계를 무한히 거슬러 올라가서 추구할 수도 없다. 만약 첫 번째로 움직이게 하는 자가 없다면, 두 번째로 움직이는 자도 없다. 왜냐하면 모든 두 번째의 원인은 그 첫 번째의 원인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첫 번째로 움직이게 하는 자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이 첫 번째로 움직이게 하는 자는, 어떤 다른 것에 의해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움직이는 자이어야 한다. 아퀴나스는 이를 아래와 같이 논하고 있다.

첫째이며 더 명백한 길은 운동변화에서 취해지는 길이다. 이 세계 안에는 어떤 것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 확실하며 또 그것은 감각으로 확인되는 것이다. 그런데

47) 토마스 아퀴나스, 신창석 옮김, 『대이교도대전』 I.186, 245쪽.

움직이는 모든 것은 다른 것한테서 움직여진다. 사실 어떤 것도 그것을 향해 움직이는 것에 대해 가능태에 있지 않은 한 움직일 수 없다. 이와는 달리 움직여 주는 것은 그것이 현실태에 있는 한 움직여 준다. 즉 움직여 준다는 것은 어떤 것을 가능태에서 현실태로 이행시켜 가는 것 외의 다른 것이 아니다. 그런데 가능태에서 현실태로 이끌어지는 것은 현실태에 있는 어떤 유(有)에 의하지 않으면 될 수 없다. (중략) 움직이는 모든 것은 다른 것한테서 움직여져야 한다. 어떤 것이 그것에 의해 움직이게 되는 것이 또한 움직인다면 그것 또한 다른 것한테서 움직여져야 하며 그렇게 움직여주는 것 또한 다른 것한테서 움직여져야 한다. 그런데 이렇게 무한히 소급해 갈 수는 없다. 제2동자들은 제1동자한테서 움직여지는 것에 의해서가 아니면 다른 것을 움직여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중략) 우리는 다른 어떤 것한테서도 움직여지지 않는 어떤 제1동자에 필연적으로 도달하게 된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이런 존재를 신으로 이해한다.<sup>48)</sup>

신발이 발에 의해 움직여지지 않으면 움직이지 못하듯 제1동자에게서 움직여지지 않으면 다른 것을 움직여주지 못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운동의 원인을 소급해가다보면 그 어떤 원인도 가지지 않는 제1동자에 필연적으로 도달하게 된다. 이를 아리스토텔레스는 제1형상 혹은 순수 형상이라 했고, 부동의 원동자(Unmoved Mover, 不動의 原動者, 자신은 움직이지 않으면서 다른 모든 것을 움직이게 하는 것) 라고 하였으며, 이러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을 아퀴나스는 ‘신’으로 받아들인다. 이 ‘부동의 원동자’는 다른 것으로는 변화되지 않고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가능태도 포함하지 않은 순수 현실태다. 아퀴나스는 이런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를 통해, 신을 순수 현실태, 즉 순수한 현실성이라고 본 것이다.

모든 사물은 현실태에 있는 한에서 작용한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현실적이 아닌 것들은 그것의 전체가 아니라 일부를 통해서 작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전체를 통해 작용하지 않는 자는 제일 능동인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기의 본질을 통해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에 참여함으로써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제일 작용자, 즉 신은 어떠한 수동성이 섞여 있지 않으며 순수 현실태다.

49)

48) 토마스 아퀴나스, 정의채 옮김, 『신학대전』 I, 2문제, 3절, 151~155쪽.

49) 토마스 아퀴나스, 신창석 옮김, 『대이교도대전』 I, 137, 207쪽.

비록 자연 과학자들이 신의 존재를 긍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운동의 원리, 인과의 원리를 통하여 신의 존재를 추론하는 방식은 매우 과학적인 사유 방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2. 능동인에 의한 증명

토마스 아퀴나스는 두 번째 증명방법으로 움직이는 것이라는 운동의 개념을 확대하여 ‘능동인의 질서’ 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첫째 길에서의 운동을 작용으로 바꾸어 놓으면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움직여지는 모든 것은, 반드시 한 다른 것에 의해서 움직여진다”<sup>50)</sup>고 하였다. 「자연학」 7권1장에 나타나 있는 이 증명은 스스로 운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 안에도 움직이게 하는 자와 움직여지는 자기 있으며, 따라서 움직여지는 모든 것은 다른 어떤 것에 의해 움직여진다고 하는 원칙은 타당하다고 말하고 있다.

분명히 실체 또는 형상은 실현 상태에 대응한다. 그래서 어떤 실현 상태가 그 가능 상태보다도 실체에 있어서 먼저라는 사실은 분명하다. 그리고 어떤 하나의 실현 상태에는 항상 어떤 다른 실현 상태가 시간적으로 앞서 있다. 그리고 영원히 존재하는 (시간적으로 가장 앞서 있는) 제1의 운동자가 실현 상태에 이르기까지 이어져 있다.<sup>51)</sup>

이 세상에는 능동인<sup>52)</sup>의 질서가 있다. 이것은 감각적으로도 확인될 수 있는 것이다. 땅이 젖어 있다면 비가 왔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어떤 나무가 꺾여 있다면 바람이 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는 바람을 보지는 못하지만 꺾인 나무라

50) Aristoteles, *physics*. “But if this is accepted, it will follow that everything is changed by something.” book VII, p167.

51) 아리스토텔레스, 김천운 옮김, 『형이상학』, 동서문화사, 2013, 9권, 275쪽.

52) ‘causa efficiens’ 는 ‘능동인(能動因)’ 또는 ‘작용인(作用因)’ 으로 번역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단순히 기계적으로 어떤 것에 작용하는 것이 아닌, 수동과 구별되는 의미로서의 능동적으로 행위 하는 사태의 첫 번째 의미를 강조하고자 한다. 다양한 원인 중에 하나인 것이 아닌 어떤 것을 유발하는데 있어서 직접적인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신학대전』에서도 ‘능동인’ 으로 번역되고 있다. (토마스 아퀴나스, 정외채 옮김, 『신학대전』 I, 2문제, 3절, 156~157쪽 각주 참조)

는 결과가 있다는 것으로 볼 때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 밖에 없다. 또 이와 동일한 예로 얼음이 언 것을 보면 기온이 내려가 물이 얼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가열한 물이 수증기로 되는 것을 보면 열이 수증기의 능동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모든 사물은 다 작용하고 있고 이 세상에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아퀴나스는 능동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둘째 길은 능동인(能動因)의 이유에서다. 사실 우리는 이 감각계에 능동인들의 질서(계열)가 있는 것을 발견한다. 그런데 이런 세계에서는 그 어떤 것도 자기 자신의 능동인으로 발견되지 않으며 또 그런 것은 가능하지도 않다. 만일 그런 것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그것은 자기 자신보다 먼저 있어야 할 것이며 이런 것은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능동인들에 있어서 무한히 소급해 갈 수는 없다. 그 이유는 모든 질서 지어진 능동인의 계열에 있어서 첫째 것은 중간 것의 원인이고 중간 것은 최종적 것의 원인이기 때문이다. 이때 중간 것이 많건 혹은 하나만 있건 그것은 관계없다. 그런데 원인이 제거되면 결과도 제거된다. 그러므로 만일 능동인들의 계열에 있어서 첫째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최종의 것도, 중간의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능동인들의 계열에 있어서 무한히 소급되어 간다면 제1능동인이 없을 것이며 따라서 최후의 결과도, 중간 능동인들도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제1능동인을 인정해야 하며 이런 존재를 모든 사람은 신이라 부른다. 53)

모든 사건은 원인을 갖는다. 어떤 사건도 자기 자신의 원인일 수는 없다. 모든 사건에는 선행원인이 있어야 한다. 원인의 원인을 쫓아가다보면 이 세계에서는 스스로 자신이 운동의 원인이 되는 것은 발견되지 않는다. 인과계열의 각 원인들이 자신들의 현실적인 원인이 되기 위해서는 제1능동인이 있어야 한다. 능동인의 무한계열에 대해 아퀴나스는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

능동인들의 계열에 있어서 무한히 진행하여 간다는 것은 ‘그 자체로써’는 불가능하다. 예를 들면 어떤 결과를 위해 그 자체로써 요구되는 원인들이 무한히 다수화 되어 가는 경우이다. 그것은 예를 들어 돌은 막대기에 의해 움직여지고 막대기는 손에 의해 움직여지는 등 이렇게 무한히 진행되어 가는 경우이다. 그러나 작

53) 토마스 아퀴나스, 정의채 율김, 『신학대전』 I, 2문제, 3절, 157~159쪽.



용인의 계열에 있어서 우유적으로 무한히 진행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 즉 무한히 다수화되는 모든 원인이 다만 하나의 원인의 질서(위치)를 갖고 있어 이런 원인들의 다수화가 우유적인 경우이다.<sup>54)</sup>

이 논증도 역시 원인들과 결과들 사이의 무한 소급의 불가능성에 근거하여 최초의 원인 받지 않은 원인의 실존을 증명하는 것으로 결론짓고 있다.

### 3. 필연적인 존재에 의한 증명

세 번째 길은 우연히 일어나는 현상들의 원인으로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존재에 근거하여 증명한다. 우리는 세계에서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는 생성 소멸하는 것들을 경험적으로 발견한다. 세계 속의 사물들은 가능성 우연적 존재로서 생성, 소멸이 가능하다. 우유(accidens)라고 부르는 이 모든 것은 항상 존재할 수 없으며 어떤 때는 없는 것이다. 가능성 존재들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모든 것이 가능성 존재라면, 과거의 어느 시점에 어떠한 것도 존재하지 않을 수 있었다.

과거의 어느 시점에 어떠한 것도 존재하지 않았다면, 현재에도 아무 것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우연적 존재자들이 실존했다가 사라지는 것을 끊임없이 관찰하게 되면 이 우연적 존재자들을 존재하게 만드는 어떤 필연적 존재자가 실존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만일 그런 필연적 존재가 실존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다라면 그 어느 것도 지금 실존할 수 없었을 것이다. 자신의 필연성(necessitas)을 여타의 사물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물들 안에 이 필연성을 야기하는,<sup>55)</sup> 스스로 자신의 필연성을 소유하는 어떤 존재자의 존재를 우리는 인정해야만 한다. 필연성의 원인이 다른 데에 있지 않고 다른 것들에게 필연성의 원인이 되는 어떤 것, 즉 ‘그 자체로 필연적인 어떤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것을 신이라고 한다.

54) 토마스 아퀴나스, 정의채 옮김, 『신학대전』 I, 46문제, 7절, 6권 181쪽.

55) ‘다른 사물들에게 필연성을 야기하다’는 것은 가능성의 존재를 현실성의 존재로 만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능성 중의 존재’는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기에 ‘우연인 것’이지만, 현실성 중의 존재는 이미 존재한다는 의미에서 ‘필연적’인 것이다.

셋째 길은 가능과 필연에서 취해진 것이다. 즉 우리는 사물세계에서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들을 발견한다. 그런 것들은 생성, 소멸하며, 따라서 존재할 수도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이렇게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항상 존재할 수는 없다. 그것은 존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어떤 때는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든 것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면 어떤 때에는 사물계에 아무것도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진(眞)이라면 지금도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그 이유는 없는 것은 있는 어떤 것에 의해서가 아니면 존재하는 것을 시작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만일 어떠한 유(有)도 없었다면 어떤 것도 존재하기를 시작하지 못했을 것이며 지금까지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이것은 명백히 허위다. 그러므로 모든 유가 가능한 것뿐일 수는 없고 사물계에 어떤 필연적인 것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모든 필연적인 것은 자기 필연성의 원인을 다른 데에 갖는 필연적인 것들의 계열에 있어서 소급이 무한히 진행되어 갈 수는 없다. 이것은 벌써 능동인의 경우에서 증명된 바이다. 따라서 우리는 자기 필연성의 원인을 다른 데에 갖지 않고 다른 것들에게 필연성의 원인이 되는 어떤 것, 즉 그 자체로 필연적인 어떤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존재를 모든 사람은 신이라 부른다.<sup>56)</sup>

요셉 라삼은 『토마스 아퀴나스:존재의 형이상학』에서 “다만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이고 우연적인 존재가 절대적이고 필연적인 존재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절대적이고 필연적인 존재(神)를 알아가는 그 방식(즉, 존재자들로부터의 추론의 방식)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절대적으로 독립적인 존재로부터 의존적인 존재를 증명하고자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믿음의 진리조차도 ‘신이 존재하니까, 제 사물들이 존재한다’ 는 것을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들은 우리들의 이성을 통해서 ‘제 사물들이 존재하니까, 신은 존재한다’ 라고 긍정할 수는 있다.” 고 하였다.<sup>57)</sup> 아퀴나스도 “절대자는 그 본성의 탁월성으로 말미암아 만물 위에 있으며, 또한 모든 것의 존재를 있게 하는 원인으로서 만물 위에 존재 한다”<sup>58)</sup>고 하였다. 따라서 ‘우연적인 것’ 은 피조물의 속성이고 ‘필연적인 것’ 은 신의 속성이다.

우연적인 것은 그 원인에 의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고 존재할 수도 있는 방

56) 토마스 아퀴나스, 정의채 옮김, 『신학대전』 I, 2문제, 3절, 163~165쪽.

57) 요셉 라삼, 이명곤 옮김, 『토마스 아퀴나스: 존재의 형이상학』, 누멘, 2009, 100쪽.

58) 토마스 아퀴나스, 정의채 옮김, 『신학대전』 I, 8문제, 1절, 377쪽.

식으로 원인 속에 존재하지만, 필연적인 것은 그 자신의 원인에 의해서만 존재하기에 필연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 태양의 운동이 필연적이더라도 바람과 습도 등 중간 원인들이 우연적이기 때문에 식물들은 필연적으로 열매를 맺지는 않는다. 따라서 우연적 존재가 원인이 되어 생기는 결과는 필연적일 리가 없다.

‘신’의 인식은 필연적인 것에 대한 인식이다. 모든 사물들의 존재를 필연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존재는 그 자체 필연적인 존재이다. 따라서 신의 존재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고 할 수 없고 필연적으로 존재하여야 한다.

위에서 말한 세 가지의 증명과정은 공통점을 갖고 있다. 경험적 사실에서 출발하여 인과관계를 거쳐 계속하여 원인을 규명해 나간다는 것과, 원인의 원인을 찾아 올라가 근원적인 원인을 쫓아간다는 것이다. 원인의 계열을 거슬러 올라가 그 궁극적인 원인으로서의 신의 존재를 논증하려고 한 것이다. 후세의 사람들은 이런 생각들을 우주론적 증명<sup>59)</sup>이라고 일컫는다. 존재하는 것의 기원과 법칙으로부터 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이다.

#### 4. 완전성의 단계에 의한 증명

네 번째 길은 완전성(perfectio)의 단계에 의한 증명이다. 세계 속의 사물들은 완전성의 정도가 다르다. 우리들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진, 선, 미에는 모두

---

59) 우주론적 증명(Cosmological Arguments)은 자연계에 있는 사물들로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신의 존재를 증명하고 인식하려고 한다. 제일원인론에 의하면 원인과 결과 사이에 존재론적 연속성이 있으며 마침내 신의 존재에게까지 연결되어 결국 이 세계에 존재하는 존재자와 신의 존재는 서로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이론이다. 그러나 우주론적 증명에 대해 오늘날 문제점이 지적되기도 한다. 첫째로, 제일원인은 사물들 사이에 필연적인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즉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인과율은 자연과학의 방법론인 귀납법의 전제이다. 지금까지 인류는 인과율을 전제함으로써 귀납법적인 사고 즉 경험론적인 사고를 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경험을 통해서 증명된 것으로 간주하였다. 그런데 독일의 물리학자 하이젠베르크(Heisenberg)가 1925년에 발표한 “불확정성원리”(Principle of Underminacy)에 의하면 미시세계와 거시세계에서는 원인과 결과 사이에 필연성(necessity)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연성이 지배한다. 기껏해야 개연성(probability)이 지배한다고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자연과학은 더 이상 과학적인 진리의 절대성을 주장할 수 없게 되었다. 둘째로, 제일원인론에 의하면 원인과 결과 사이에 존재론적 연속성이 있으며 마침내 신의 존재에게까지 연결되어 결국 이 세계에 존재하는 존재자와 신의 존재는 서로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이론이다. 이것은 신과 인간 사이에 질적 차이가 있으며 인간이 스스로 신을 알 수 없다고 하는 성서적 이해와 배치된다. 성서에 의하면 인간이 신을 알 수 있는 길은 신의 계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러므로 비성서적이다. 전성용, 「신 존재 증명에 관하여」, 『교수논총』 15집, 서울신학대학교, 2004, 244-246쪽.

정도의 차이가 있다. 길거리의 들팽이보다 장미꽃이 아름답고, 장미꽃보다 사람이 더 아름답다고 할 수 있다. 모든 생물은 다 생명력을 갖고 있지만 그 모든 생물이 생명의 같은 완전성이나 같은 단계를 갖는 것은 아니다. 동물의 생명력은 식물의 생명보다는 보다 완전한 것이며 인간의 생명은 감각적 생명보다는 완전한 것이다. 또 상식적인 진리보다 학문의 진리가 더 완전할 수 있으며, 어떤 과정에서 학문의 진리보다 종교적 진리가 더 완전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우연적 존재자들 가운데서 발견되는 완전성의 등급은 필연적으로 어떤 필연적인 최고의 존재자 안에서 발견되는 최초의 완전성의 실존을 함축하고 있다. 이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진술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넷째 길은 사물계에서 발견되는 단계에서 취해진다. 사실 사물계에서는 선성(善性)과 진성(眞性)과 고상성(高尚性)에 있어서 더하고 덜한 사물들이 발견된다. 또 [선, 진, 고상 외의] 다른 것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서로 다른 여러 사물들에 대해 더하고 덜하다고 하는 것은 최고도로 있는 어떤 것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접근하는 데 따라 말해지는 것이다. (중략) 어떤 영역에 있어서 최고도의 것으로 불리는 것은 그 영역에 속하는 모든 것의 원인이다. 그러므로 어떤 사물의 경우이든 그 존재와 선성과 모든 완전성의 원인인 어떤 것이 있는 것이다. 이런 존재를 우리는 신이라 부른다.<sup>60)</sup>

어떤 영역에 있어서 그 영역 가운데 가장 완전한 것은 그 영역에 속하는 다른 모든 것의 척도가 되는 것이다. 그 하나하나의 자기 영역의 척도에 더 근접하거나 덜 근접하는 그만큼 더 완전하거나 덜 완전하기 때문이다. 마치 흰색이 모든 색의 척도가 되고, 덕스러운 인간이 모든 인간의 척도가 되는 것과도 같다. 그리고 어떤 제한도 없이 모든 완전성들을 소유하고 있는 최고의 존재는 다른 존재자들 안에서 발견되는 모든 완전성들의 원인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포함관계에서 보다 더 큰 개념이 있다면 가장 완전한 것은 신이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신 이외의 모든 것은 자기 존재 즉 스스로의 존재가 아니고 존재를 분유하고 있을 뿐, 즉 존재에 참여하고 있을 뿐이라는 귀결이 된다. 그러므로 존재를 각기

60) 토마스 아퀴나스, 정의채 옮김, 『신학대전』 I, 2문제, 3절, 165~167쪽.

다르게 분유함으로써 다양화되는 모든 것은 즉 완전성을 더 많게 혹은 더 적게 (차지하며) 존재하는 것들은 그 어떤 것이든 다 필연적으로 가장 완전하게 존재하는 하나의 제일유(第一有)로부터 원인이어야 한다.<sup>61)</sup>

어떤 사물로 하여금 현실적 존재를 얻게 하고 그 사물에 내재하도록 하는 것은 모두 그것의 본질 전체이거나 아니면 그 본질의 일부일 것이다. 토마스의 형이상학 사상의 핵심인 有(ens)<sup>62)</sup>의 존재론적 구성요소인 존재(esse)와 본질(essentia)은 단순히 개념적인 구분이 아니라, 서로 실제적으로 구분되는 것이다. 토끼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토끼가 토끼의 본질을 가지고 있다는 사태로부터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토끼가 토끼의 본질을 지니는 한 토끼는 영원히 존재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떤 것이 존재를 지속한다는 것과 어떤 본질을 가진다는 것은 서로 구분 되는 것이다. 자신의 존재(esse)가 신의 본질(essentia)과 다른 사물은 모두 그 존재를 타자로부터 받아야 한다. 그런데 우주에는 존재(esse)를 다른 것으로부터 부여받지 않고 스스로가 존재인 그러한 존재가 최소한 하나는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우주 안의 그 어떤 것도 그의 본질이 곧 ‘있음(esse)’인 것은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無’로부터 ‘있음(esse)’을 창조하는 존재자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神)은 ‘유(有)’를 창조하는 가장 완전한 존재로서 세계의 있음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증명은 먼저 최고로 완성된 존재가 있어야 그 다음에 불완전한 존재가 가능하다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즉 존재의 위계가 증명의 핵심이므로 존재론적 증명이라고 부른다. 이 증명은 안셀무스의 『모놀로기온』에 나오는 세 번째 증명과도 유사하다.

61) 토마스 아퀴나스, 정의채 옮김, 『신학대전』 I, 44문제, 1절, 6권, 55쪽.

62) 有(ens)는 현실적 존재와 가능성적 존재를 다 표현한다. 有(ens)는 어원적으로 있다(esse) 동사의 분사형이다. 또한 有는 존재자(存在者)·존재사물(存在事物)·있는 것으로도 표현된다. 본질(essentia)은 영어의 essence, 독일의 Wesen 등과 공통된다. 모든 有는 어떤 것이다. 이 어떤 것이란 두 가지 요소를 내포한다. 즉 주체와 그 주체를 존재하게 하는 요소다. 어떤 사물에 대해 “그것이 무엇이나?”고 묻는 것은 그 사물의 본질에 대해 묻는 것이고, “그런 사물이 존재하느냐?”고 묻는 것은 그 존재성에 대해 묻는 것이다. 존재(esse)는 to be, Sein과 같은 뜻이며 존재의 현실을 의미한다. 이런 의미의 존재적 현실(actus entitativus)은 본질에 존재현실성을 주는 것이며 가능태에서 현실태로, 즉 실재적 존재로의 이행을 뜻하기도 한다. “존재는 어떤 것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는 것이다.” “존재는 어떤 것이 그것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있는 것이다.” 정의채, 『형이상학』, 바오로딸, 2010, 155~156쪽.

## 5. 목적론에 의한 증명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질서 정연하게 정돈되어 있다. 이성을 소유하지 않은 자연의 부분이나 인간 육체의 부분들도 모두 질서정연하다. 순수한 자연물들도 특정한 목적을 지닌 것처럼 행동한다. 나무는 봄이 되면 꽃이 피고 가을이 되면 열매를 맺는다. 우연으로 보기에 너무나 절묘한 조화와 규칙성을 보인다. 이러한 규칙성들은 자연법칙이라는 이름으로 그 인과관계가 확인되곤 하지만, 자연과학은 아직도 부족한 설명 체계임에는 틀림없다. 자연과학은 ‘어떻게’ (즉, 과정)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지를 설명할 수 있을 뿐, ‘왜’ 그러한 규칙성을 지닐 수 있는지는 설명하지 못한다.

모든 사물들은 하나의 목적(finis)을 지향하고 있고, 이 목적을 향해 움직인다. 하나의 목적은 그보다 더 큰 목적을 지향하며, 이 목적은 다시 자기보다 더 큰 목적을 지향한다. 사과나무의 씨앗은 때가 되면 싹을 틔우고 이 싹은 자라 꽃을 피운다. 좀 더 성장하면 열매를 맺는다. 이처럼 세계는 모든 사물들이 자기보다 더 큰 목적을 지향하는 목적성의 체계이다. 이로써 세계는 목적적 질서를 가지게 된다. 뿐만 아니라 이 질서의 궁극적 원인이 되며, 모든 사물들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최고의 목적을 우리는 전제할 수밖에 없다. 이성을 가지지 않은 것들조차도 이렇게 목적론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보면 우주 안에는 목적론적인 질서가 있어 보인다. 자연의 모든 사물들에는 자신들의 목적으로 향하게 해주는 어떤 지성적인 존재가 존재한다. ‘목적을 향한 질서’ 라는 것은 곧 지성적인 특성을 말하고 있다고 아퀴나스는 말하고 있다.

다섯째 길은 사물들의 통치에서 취해진다. 사실 우리는 인식을 갖지 못하는 사물들, 즉 자연적 물체들이 목적 때문에 작용하는 것을 본다. 이런 것은 자연물들이 가장 좋은 것을 얻기 위해 항상 혹은 자주 같은 모양으로 작용하는 데서 나타난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우연에서가 아니라 어떤 의도에서부터 목적에 도달하는 것이 명백하다. 그런데 인식을 갖지 않은 것들은 인식하며 깨닫는 어떤 존재에 의해 지휘되지 않으면 목적을 지향할 수가 없다. 이것은 마치 화살이 궁수에 의해 지휘되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모든 자연적 사물을 목적으로 질서지어 주는 어떤 지성적 존재가 있다. 이런 존재를 우리는 신이라 부른다.<sup>63)</sup>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이란 한 가지의 내적인 원리를 바탕으로 해서, 연속적인 운동 안에서 한 가지의 목적으로 내닫는 것”<sup>64)</sup>이라고 한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있어서는 모든 작용이 그 개념에 비취보더라도 한 가지의 목표를 향해 질서 지워져 있기 때문에, 이 목표 즉 작용의 마지막은 작용의 시작인 본질의 개념 속에 이미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목적은 형상과 일치되며, 운동원인을 형상원인과 동일시하는 것처럼, 아리스토텔레스는 형상원인을 목적원인과 동일시한다. 그래서 개별적인 사물들의 실체 또는 본성은 항상 ‘어떤 것을 위해 생겨난 것’이라고 한다.<sup>65)</sup>

모든 행동자(능동자)는 목적 때문에 행동한다. 그렇지 않다면 능동자의 행동에서 저것이 아니고 이것이 결과가 될 것이며 그것은 우연에서가 아니면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능동자와 수동자는 바로 그런 것인 한에 그 목적을 같이 하는 것이다. 그러나 각기 그 양태를 달리한다. (중략) 능동자일 뿐인 제1능동자(제1작용자)에게는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동한다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그러나 그런 작용자 즉 능동자는 오로지 자기의 완전성 즉 자기의 선성(善性)을 전달하려고 의도한다. 그리고 각 피조물은, 신의 완전성과 선성과의 유사인 자기의 완전성에 도달하려고 의도한다. 그러므로 신의 선성은 모든 사물의 목적이다.

66)

모든 사물 하나하나에 대해 특정 목적으로 향하도록 만드는 누군가의 주재(主宰)가 없었더라면, 서로 모순되고 조화되지 않는 여러 사물들이 언제나 또는 대부분의 경우에 단일한 질서 안에서 조화를 이룬다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다. 그런데 세계 속에서 우리는 상이한 본성을 가진 사물들이 어떤 유일한 질서 속에서 조화를 이루는 것을 관찰하는데, 드물거나 우연에 의해서가 아니라 언제나 또는 대부분의 경우에 그러하다. 그러므로 토마스 아퀴나스의 말처럼 “자신의 섭리로 세계를 통치하는 존재”<sup>67)</sup>가 존재해야 한다. 이를 우리는 신이라고 부른다.

63) 토마스 아퀴나스, 정의채 옮김, 『신학대전』 I, 2문제, 3절, 169~171쪽.

64) Aristoteles, *physics*. “The point is that those things are natural which undergo continuous change, starting from an intrinsic source of change and concluding at a particular end.” book VIII, p52.

65) 요한네스 힐쉬베르거, 강성위 옮김, 『서양 철학사』, 이문출판사, 2012, 264쪽.

66) 토마스 아퀴나스, 정의채 옮김, 『신학대전』 I, 44문제, 4절, 6권, 77쪽.

67) 토마스 아퀴나스, 신창석 옮김, 『대이교도대전』 I, 13, 195쪽.

이상에서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사고를 받아들여 구체적으로 실재하고 있는 사물에서 출발하여 신 존재를 증명하였다. 세계 속에서 발견되는 운동, 변화, 인과 관계, 우연적인 존재들, 완전성의 단계들, 목적인의 질서와 같은 사실들에서 출발해서 제1동자, 제1작용인, 필연적 존재, 최고 완전자, 최고 지성자 등의 개념에 도달하였고 아퀴나스는 이를 신이라고 불렀다. 그는 실재하는 감각경험에서 출발하여 그 존재가 무엇인지, 그것이 어떻게 존재하는지, 그 존재의 조건이 무엇인지를 탐구하며 객관적으로 신 존재를 증명하려고 한 것이다.



## Ⅳ. 토마스 아퀴나스 신 존재 증명의 의의

중세는 기독교가 지배하던 사회였고 따라서 신의 존재를 당연하게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기독교의 신이 지배하던 사회에서도 신의 존재는 단지 신앙의 문제만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당대에도 무신론자들은 있었고, 이교도나 이단자들도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 아퀴나스 이전에도 신 존재 증명에 대한 시도는 있었고 특히 안셀무스의 신 존재 증명은 서양 철학의 역사에 있어서 신에 관한 최초의 체계적 증명으로 유명하다. 하지만 아퀴나스가 시도한 신 존재 증명은 다른 철학자들과는 다르다. 구체적인 경험적 사실과 무관하게 이성적인 추론으로 신의 존재를 증명하려 했던 철학자들과는 달리 토마스 아퀴나스는 일반적으로 인간의 이성에 긍정되는 일종의 자연법칙을 통해 경험적이고 실제적인 사실에서 출발하여 이성적인 추론의 도움으로 신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려 하였다. 우리는 이러한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 존재 증명이 가지는 몇 가지 의의를 도출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1. 실재론적 증명과 경험적 정신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 존재 증명의 의의는 실재론(realism)적이다. 구체적인 세계현상과 인간현상에 대한 경험에 근거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인간의 인식에 대한 아퀴나스의 관점은 신비적이거나 혹은 순수한 개념적, 논리적인 논증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재하는 세계 내의 자연현상과 인간현상을 통해 어떤 법칙을 산출하고, 이에 근거하여 결론을 도출하는 것으로 경험적이고 귀납적인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아퀴나스는 모든 인간의 앎은 먼저 감각경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였으며, 모든 보편적인 앎은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sup>68)</sup>

감각에서 지성으로 나아가며 인간은 끊임없이 내면을 추구한다. 하지만 정신이

68) “지성은 보편적인 것을 아는 능력이다. 그리고 이는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신학대전』 I, 76문제, 1절, 10권 123쪽.

가지는 의의는 단순히 신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아닌 창조된 존재자들이 가지는 창조주와의 관계 즉 무한자와 유한자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성에 대한 형이상학적인 이해를 더해 주는데 있을 것이다.<sup>69)</sup> 창조된 피조물들은 어떤 식으로든 신적 존재와 어떤 관계성 속에 있으며 무한자와 유한자 사이의 형이상학적 관계를 긍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아퀴나스의 신 존재 증명은 보다 현실적이고 보다 덜 신비적이다. 하지만 인간은 보편적인 것을 직접 경험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인간의 감각경험은 그 자체 인간의 내면에 어떤 보편적인 것을 산출하는 근원이며, 개별적인 경험을 통해서 보편적인 것을 산출한다. 다양한 것에서 어떤 공통되는 것 혹은 일반적인 것을 추출한다는 것은 감각적인 경험을 통해서 일반적인 혹은 보편적인 진리를 획득하는 앎의 행위라고 할 수 있다. <sup>70)</sup>

창조된 피조물들은 어떤 식으로든 신적 존재와 어떤 관계성 속에 있다. 아퀴나스의 신 존재 증명은 신의 현존과 지상의 존재들 사이의 어떤 내밀한 관계성<sup>71)</sup>을 증거하면서 초월적인 세계와 현실의 세계, 혹은 무한자와 유한자 사이의 관계를 긍정하고 있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전 철학자들과는 다르게 실제적인 경험에서 신 존재를 증명한 것은 12세기 후반부터 알려진 아리스토텔레스 사상의 영향이 가장 크다. 아랍 철학자들을 거쳐 수용되었던 일부 주제에서 그리스도교의 가르침과 합치될 수 없는 점이 발견되면서 보수적인 신학자들은 반발했지만, 토마스 아퀴나스는 새롭게 발견된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개방적으로 받아들였고 전통적인 그리스도교를 성공적으로 종합해내는 데 가장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다.

아퀴나스는 신의 존재를 인식하게 해주는 첫 번째 증명을 세계 속에서 체험

69) “한 개인이 보다 내면적이 된다는 것은 결국 성장적인 능력에서 감각적인 능력으로 그리고 지성적인 능력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며, 나아가 자신의 근원 자체인 신에게로 나아간다는 것, 즉 영성적인 삶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보다 내적으로 된다는 것은 보다 큰 세계에로의 열림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명곤, 『중세철학에서 내면성의 의미』, 한국중세철학회, 2009, 32쪽.

70) 야스퍼스도 인간의 인식은 그에게 주어진 경험에, 또한 감각 내용이 없이는 불가능한 직관에 의존한다고 하였으며 우리의 사고에 있어서 사고형식을 채워주는 감각자료 없이는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다고 하였다. 또 세계는 스스로 성립될 수 없고 자기 자신의 근거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초월자가 존재하며 이 세계의 존재는 초월자를 지시하는 암호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카알 야스퍼스, 신옥희 옮김, 『철학적 신앙』,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5, 63-67쪽.

71) “관계성에 있어서의 내면적이란 ‘물리적이고 실리적인 외적인 것에 대립하는 정신적이고 이념적인 어떤 것’ 혹은 ‘인간의 정신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의미있는 것’ 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명곤, 『중세철학에서 내면성의 의미』, 『중세철학』, 한국중세철학회, 2009, 10쪽.

가능한 운동 변화에서 찾았다. 두 번째 증명은 우리가 이 세계 속에서 수없이 경험하는 능동인의 질서에 근거한다. 세 번째 증명은 우리가 사물 세계에서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는 생성 소멸하는 것을 발견한다는 경험적 사실에서 출발한다. 이러한 구체적인 사물들에 대한 경험을 통해 신 존재로 접근한다는 것이다. 인간의 사유 체계에 가장 친밀한 것은 경험이다. 인간의 사유가 본성적으로 무한, 절대에로의 지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직접 나아갈 수는 없다. 인간은 자기가 무엇인지, 무엇이어야만 하는지를 알지 못한 채 그저 현실에 존재하고 있을 뿐이다. 인간의 사유는 구체적인 대상에 대한 물음을 통해 절대에로 나아갈 수 있다.

## 2. 이성의 힘에 대한 신뢰

토미즘에 있어서 진리를 추구하는 도구는 크게 두 가지이다.<sup>72)</sup> 하나는 이성(ratio)이며 다른 하나는 양심(synderesis)이다. 이성은 논리적인 추론을 통해서 인과관계를 파악하고 추상작업에 참여하며, 양심은 윤리·도덕적 행위의 판단원리이다. 이 두 제일원리들은 이후의 모든 판단이나 행위의 제일척도가 되며, 올바르게 사용한다는 한에서 결코 실수가 없다. 또한 토마스 아퀴나스는 지성(intellectus)과 이성(ratio)을 구별하고 있는데, 이성이 어떤 것을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추론하는 능력이라면 지성은 이러한 이성의 도움으로 어떤 것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말한다. 신비적인 영역이 아니라면 모든 인간의 지식이란 이 두 최초의 원리에 의해서 형성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두 최초의 원리를 통해서 올바르게 사유한다면 인간은 오류에 빠지지 않는다고 주장한다.<sup>73)</sup> 그러기에 토마스 아퀴나스는 유비적인 의미에서 모든 진리가 이미 신에 의해서 ‘주어져 있다’<sup>74)</sup>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 두 도구를 사용하여 그 어떤 진리라도 알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72) 이명곤, 『토마스 아퀴나스 읽기』, 세창미디어, 2013, 129쪽.

73) 위의 책, 130쪽.

74) “진리에 대한 모든 앎은 우리에게 앎의 제일원리들을 부여한 신에 의해서 주어졌다고 말한다.” *De veritas*, II, q17, 재인용, 이명곤, 『토마스 아퀴나스 읽기』, 세창미디어, 2013, 131쪽.

아퀴나스는 인간의 지성은 모든 문제에 대해서 사유할 수 있고 그리고 이성과 양심의 지속적인 노력만 있다면 반드시 올바른 진리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물론 이러한 인간의 사유에 대한 신뢰는 여러 가지 반박의 여지가 있다. 인간은 인간 그 자신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 수 없고, 현대 사회에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를 이성적으로 사유만 한다고 항상 진리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성과 양심이 인간이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앎의 도구라고 인정한다면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것이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모든 앎이 앎의 원리를 부여한 신에 의해 주어졌다’고 하는 것은 모든 앎을 알 수 있는 최초의 앎의 원리가 주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은 어떤 상황에 봉착하든지 자신이 부여받은 최초의 앎의 원리인 ‘이성과 양심’을 통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숙고하는 한, 진리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확신이었다.<sup>75)</sup>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 존재 증명의 의의는 신의 존재유무를 확인하거나, 신이 무엇인지를 알고자하는 것에 있는 것이기 보다는, 신 존재를 증명하고자 하는 인간지성의 행위를 통해서 지성과 존재와의 관계성을 이해하고, 인간지성이 자신의 고유한 행위에 대해 이해하고 있다는 것에 있다.<sup>76)</sup> 그러므로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 존재 증명은 이성의 힘에 의한 증명이다. 계시에 의존하지 않고 이성의 힘에 의해 신의 존재를 증명하고 있다. 감각경험을 바탕으로 인과관계를 통해 추론함으로써 인간의 사유능력으로 충분히 신의 존재를 증명해 보이려고 하였다.

### 3. 초월을 향한 인간 정신의 지향성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행위는 ‘무엇을 알고자 하는 특성’에 있다.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무엇을 안다는 것’ 혹은 ‘이해한다는 것’, 이는 단순히 궁금증의 해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자신을 완성하고 실현해 가는 과정이기도 하다.<sup>77)</sup> 바로 이 때문에 인간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인간의 인식과정과 그 결

75) 이명곤, 『토마스 아퀴나스 읽기』, 세창미디어, 2013, 132쪽.

76) 이명곤,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 존재 증명과 창조개념에 대한 현대적 조명」, 『철학논총』 46집 4권, 새한철학회, 2006, 255쪽.

77) “인간 영혼의 완성은 지성을 통한 진리에 대한 앎에서 이루어진다.” 『대이교도대전』 I, 3장,

과에 대한 탐구가 우선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무한자와 유한자 혹은 절대자와 상대적인 존재 사이의 관계를 이해한다는 것은 어떤 의의를 가지는가? 아퀴나스 역시 무한에까지 나아가려는 정신의 역동성을 인정한다. 인간의 지성에서 무한에 대한 갈망을 야기하는 것은 인간 지성 자체의 특성 때문이라기보다는 이러한 지성의 존재를 지속적으로 지탱하고 있는 신의 실존(有)에 의해서이다. 이러한 인간정신의 자연적인 지향성을 통해서 신 존재 증명이 가능할 것이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인간의 지성은 모든 문제에 대해 사유할 수 있고 그리고 이성과 양심의 지속적인 노력만 있다면 반드시 올바른 진리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인간성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sup>78)</sup> 또 인간정신의 특징은 어떤 것을 의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의심하고 있다는 것은 인간정신의 특징을 잘 나타낸다. 파울 툴리히(Paul J. Tillich)<sup>79)</sup>의 “의심은 믿음의 반대가 아니다. 그것은 믿음을 구성하는 한 요소다” 라는 말처럼 인간은 누구나 경험되거나 명확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의심하며 또 우리의 정신은 역동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아주 분명한 것에서 덜 분명한 것으로, 이성을 능가하는 진리에 대한 해명으로 나아간다. 이런 인간정신의 자연적 지향성이 무한히 나아가기 때문에, 결국 이는 신을 추구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인간의 욕구는 자연적으로 신을 자신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지향한다’<sup>80)</sup>는 아퀴나스의 생각처럼 태양빛이 가시적인 것의 원리인 것처럼, 모든 가지적 인식의 원리는 최상의 가지적 빛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신을 향한 지향성을 갖고 있다. 인간이 끊임없이 의심하고 알고자 하는 것이 그 증거일 수 있다. 끊임없이 의심한다는 것은 최종적인 것에 도달하기까지 질문을 멈추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절대 혹은 무한자를 지향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아는 데에 이르기 위해서, 다른 모든 존재들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야 할 것이다.<sup>81)</sup> 그런 시도 자체가 신에 대한 지향성을 의미한다.

15, 111쪽.

78) 이명곤, 『토마스 아퀴나스 읽기』, 세창미디어, 2013, 132쪽.

79) 파울 툴리히(Paul J. Tillich): 1886~1965. 독일에서 이주한 미국의 신학자이자 철학자. 셸링의 만년의 사상으로부터 신앙 실재론을 전개하였으며 또한 현대 문화와 기독교의 결합점을 찾아내곤 하였다. 『철학사전』, 철학사전편찬위원회, 중원문화, 2009, 956쪽.

80) 토마스 아퀴나스, 신창석 옮김, 『대이교도대전』 1, 10장, 63, 151쪽.

81) 이명곤,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존재 증명과 창조개념에 대한 현대적 조명」, 『철학논총』 46집 4권, 새한철학회, 2006, 254쪽.

토마스 아퀴나스가 경험적 사실에 주목한 이유는 인간 존재가 가지는 초월성이 단순히 인간지성이 가지는 고유한 속성이 아니라, 인간이 ‘존재하는 행위(esse)’를 소유하고 있다는 그 자체에 의한 결과로, 즉 ‘존재행위’를 소유한 정신이라는 특징에 의해서 드러나는 ‘인간존재 전체의 심오한 특성’이라는 점을 부각하기 위해서이다.<sup>82)</sup>

이러한 의미에서 인간의 정신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현상의 세계와 초월적 세계, 유한자와 무한자 사이의 매개자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의 정신은 본질적으로 존재와의 형이상학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곧 본질을 넘어서는 무한에로의 지향성을 말해주고 있음을 의미한다. 인간의 가장 깊은 본질은 초월적이고 신성한 무엇에 뿌리내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82) 이명곤,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존재 증명과 창조개념에 대한 현대적 조명」, 『철학논총』 46집 4권, 새한철학회, 2006, 250쪽.

## V. 나가는 말

본 논문에서 우리는 철학적 탐구의 변함없는 대상인 신 존재에 대한 토마스 아퀴나스의 증명을 고찰하였다. 그의 논증은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 원리에 기초한 다섯 가지 방법으로 알려져 있는 것이다. 영혼의 내적인 단서들이나 지성의 관념에 대한 논리적인 추론을 통해서 신의 존재를 증명하려 했던 이전 철학자들과는 달리 토마스 아퀴나스는 경험적인 세계와 자연의 법칙들을 통하여 도출된 원리들을 통하여 합리적인 추론으로 신 존재를 증명하고자 하였다. 이는 세계와 인간의 지성 그리고 신의 존재 사이에 있는 일종의 친밀성을 의미하며, 인간의 이성(지성)이 가진 자연적인 경향성, 즉 절대적인 것을 알고자 지향하는 인간 정신의 지향성과 인간존재가 가지는 절대자와의 친밀성을 이해할 수 있다는 의미를 함의하고 있다.

신 존재에 관한 주제는 인간에 관한 문제처럼 늘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었으며, 이미 낡은 것이거나 아니면 명석판명하게 정답이 주어져 있는 그러한 문제는 결코 아니다. 세계의 불충분성과 불완전성에 대한 문제와 신의 존재를 긍정하는 문제는 시대마다 인간의 다양한 언어와 개념들로 표현되어 왔다. 이러한 의미에서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존재 증명에 대한 의의를 도출해 본다는 것은 여전히 의미 있는 철학적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토마스 아퀴나스의 증명은 비-신앙인들에게 신의 존재를 증명해 보이려고 출발한 것이라기보다는, 기존의 학자들의 신 존재 증명이 불충분하거나, 한계를 가지기에 보다 완전하게 보충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왜 신이 없지 않고, 존재해야 하는가” 라는 원초적 질문에 대해 좀 더 명확한 이성적인 답을 구하려 하는 것이다. 아퀴나스의 증명은 형이상학적 법칙 등을 통해서 인간지성으로 충분히 신 존재를 증명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인간의 지성은 비록 신이 무엇인지(본질, *essentia*)를 알 수 없다고 해도 신이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 토미즘의 입장이다. 우리는 계시에 의하지 않고도 지속적인 이성적인 노력을 통해 충분히 진리를 만날 수 있으며, 이러한 노력의 과정은 또한 지성적 존재로서의 인간존재를 완성하고 실현해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인간은 믿음을 통해 신의 존재를 확신할 수 있지만, 또한 전혀 의심이 없는 믿음이란 불가능하다. 오히려 이러한 의심을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을 통해서 보다 확고한 신앙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철학자들의 노력이 불필요하게 보일 수도 있다. 또 이러한 증명을 논리적으로 반박하려고 시도해 볼 수도 있다. 현대사회에서 신에 대한 관심은 진부하고 무의미한 것으로 받아들여기도 한다. 하지만 “신 없는 인간의 비참”을 말하고 있는 파스칼의 지적처럼 현대인들은 여전히 자신보다 큰 무언가에 감증을 느끼고 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추구하고 지향하게 된다. 우리의 의식은 외부의 대상을 지향하고, 또 자기 자신에게로 향하는 지향성을 가지고 있으며, 나아가 신을 추구하는 지향성도 가지고 있다.

존재론적으로 보면 존재보다 더 큰 범주는 없다. 존재는 모든 것을 포괄하지만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포괄되지 않기 때문이다. 때문에 신이 존재라면 그는 유일하다. 신이 만물의 포괄자라면 그것은 유일자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도 “신은 어떤 유(類)에도 속하지 않는다”<sup>83)</sup>라고 표현한 것이다. 우리는 그 자체로 필연적 존재인 신을 완전하게 인식할 수는 없지만 그 결과들 안에서 발견되는 신과의 유사성을 근거로 하여 추론을 통해 신에 대한 인식으로 우리의 인식을 확대해 갈 수 있다. 인간의 지성적인 욕구는 자연적으로 신을 자신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지향하고 있음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 존재 증명의 궁극적인 의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83) 토마스 아퀴나스, 정의채 옮김, 『신학대전』 I, 3문제, 5절, 213쪽.



철학자	내 용	특 징
아우구스티누스	내면에 있는 정신을 집중하여 탐구하다 보면 진리에 대한 기억을 발견함을 통해 신을 발견한다. 신은 우리 영혼에 내재하는 진리의 근원이다.	영원한 진리로부터의 증명
안셀무스	세계 속에 존재하는 다양한 선, 가장 위대하고 최고인 어떤 것, 탁월한 어떤 본성이 존재한다. ‘그것보다 더 큰 것이 생각될 수 없는 어떤 것’	존재론적 증명
보나벤투라	신의 존재가 모든 영혼에 각인된 의심할 수 없는 진리이다. 피조물을 통해 신의 발자취를 발견하고 신 존재가 그 자체로 확실하고 자명하다.	생득적 관념에 의한 증명
둔스 스코투스	가장 탁월하고 완전한 유는 무한하다. 신의 본질은 존재의 무한성으로 이해한다. (능동성, 목적성, 탁월성)	무한성에 의한 증명
토마스 아퀴나스	<b>운동으로부터의 증명</b> 가능태에서 현실태로 옮겨지는 것들은 그 자체 현실태로 있는 어떤 행위자에 의해 움직여진다. 이런 동자들을 무한히 소급해가면 최초의 동자에 이른다.	운동변화 제1동자
	<b>능동인으로부터의 증명</b> 원인과 결과들 사이의 무한계열의 불가능성에 근거할 때 다른 원인에 의해 영향 받지 않는 최초의 제1작용인이 있다.	인과관계 제1작용인
	<b>필연적인 존재로부터의 증명</b> 우연적 존재자들을 존재하게 만드는 필연적인 존재가 있다. 우연적 존재가 원인이 되어 생기는 결과는 필연적일 수가 없다. 그 자체로 필연적인 어떤 것을 인정해야 한다.	필연적 존재
	<b>완전성의 단계에 의한 증명</b> 완전성의 등급은 필연적으로 어떤 필연적인 최고의 존재자 안에서 발견된다. 최초의 완전성의 실존은 그 영역에 속하는 모든 것의 원인이다.	최고 완전자
<b>목적론적 증명</b> 모든 사물들에는 자신들의 목적으로 향하게 해주는 어떤 지성적인 존재가 존재한다.	최고 지성자	
부록 : 『중세 철학자들의 신 존재 증명에 관한 도표적 이해』		

## Ⅵ. 참 고 문 헌

### 1. 단행본

- 김용규, 『서양문명을 읽는 코드 신』, Humanist, 2016.
- 김인곤 외, 『소크라테스 이전 철학자들의 단편 선집』, 아카넷, 2013.
- 김현태, 『둔스 스코투스의 철학 사상』, 가톨릭대학교출판부, 1994.
- 루이 라벨, 이명곤 옮김, 『자아와 그 운명』, 누멘, 2008.
- 박경숙, 『아우구스티누스』, 살림, 2011.
- 박승찬, 『토마스 아퀴나스』, 새길, 2012.
- 보나벤투라, 원유동 옮김, 『하느님께 이르는 영혼의 순례기』, 누멘, 2012.
- 블레즈 파스칼, 이환 옮김, 『팡세』, 민음사, 2013.
- 소피아 로비기, 이재룡 역주, 『성 보나벤투라』, 가톨릭대학교출판부, 2001.
- 아리스토텔레스, 김천운 옮김, 『형이상학』, 동서문화사, 2013.
- \_\_\_\_\_, 임두원 역주,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학 읽기』, 부크크, 2015.
- 아먼드 A, 마우러, 조홍만 옮김, 『중세철학』, 서광사, 2007.
- 아베로에스, 이재경 옮김, 『결정적 논고』, 책세상, 2005.
- 아우구스티누스, 김기찬 옮김, 『고백록』,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11.
- \_\_\_\_\_, 박일민 옮김, 『자유지론』, 야웨의 말씀, 2010.
- \_\_\_\_\_, 성염 옮김, 『참된 종교』, 분도출판사, 2011.
- 양해림, 『서양철학사』, 집문당, 2013.
- 에티엔느 질송, 김태규 옮김, 『아우구스티누스 사상의 이해』,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1.
- 요셉 라삼, 이명곤 옮김, 『토마스 아퀴나스: 존재의 형이상학』, 누멘, 2009.
- 요셉 피퍼, 김진태 옮김, 『중세 스콜라 철학』, 가톨릭대학교출판부, 2015.
- \_\_\_\_\_, 신창석 옮김, 『토마스 아퀴나스 그는 누구인가』, 분도출판사, 2005.
- 요한네스 힐쉬베르거, 강성위 옮김, 『서양철학사』, 이문출판사, 2012.

- 유원기,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철학. 자연은 헛된 일을 하지 않는다』, 서광사, 2009.
- 이명곤, 『토마스 아퀴나스 읽기』, 세창미디어, 2013.
- 정의채, 『형이상학』, 바오로딸, 2010.
- 존 쿠퍼, 김재영 옮김, 『철학자들의 신과 성서의 하나님』, 새물결플러스, 2014.
- 카알 야스퍼스, 신옥희 옮김, 『철학적 신앙』,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79.
- 캔터베리의 안셀무스, 박승찬 옮김, 『모놀로기온, 프로슬로기온』, 아카넷, 2014.
- F. 코플스톤, 박영도 옮김, 『중세철학사』, 서광사, 1988.
- 토마스 아퀴나스, 정의채 옮김, 『신학대전』 I ~ X, 바오로딸, 2008.
- \_\_\_\_\_, 신창석 역주, 『대이교도대전』 I ~ II, 분도출판사, 2015.
- \_\_\_\_\_, 이명곤 옮김, 『토마스 아퀴나스 진리론』, 책세상, 2012.
- 플로티노스, 조규홍 옮김, 『플로티노스의 엔네아데스 선집』, 누멘, 2009.
- Aristoteles, *physica*, bibliosife, 2009.
- Thomas Aquinas, *Contra Gentiles*, Lib. I ~ II, Paris, éd. Louis Vivès, 1854.
- \_\_\_\_\_, *Summa Theologiae*, I ~ II, Marietti Editori, 1952.

## 2. 논문

- 김영철, 「성 캔터버리 안셀무스의 이성과 신앙(ratio et fides)」, 철학논총 제36집, 『중세철학』, 2004.
- 박승찬, 「그리스도교 사상의 흐름 속에 나타난 신앙과 이성의 조화: 신앙과 이성과 신앙의 빛을 중심으로」, 『신학전망』 183호, 광주가톨릭대학교 신학연구소, 2013.
- 양태범, 「안셀무스의 『모놀로기온』과 『프로슬로기온』에서 신 존재증명의 논증 구조와 무로부터의 창조」, 『가톨릭철학』 11호, 한국가톨릭철학회, 2008.
- 양혜정, 「토마스 아퀴나스의 철학적 논의에 나타난 창조된 존재(esse creatum)와 창조되지 않은 존재(esse increatum)의 완전성과 두 존재의 관계 : 『권능

- 론』에 나타난 아리스토텔레스 가능태-현실태의 의미 적용을 중심으로, 가톨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 원유동, 「보나벤투라의 신 존재 논증에 대한 이해」, 『중세철학』 11권, 한국중세철학회, 2005.
- 유영진, 「요안네스 둔스 스코투스 신론의 존재론적 고찰」, 가톨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89.
- 이명곤,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 존재 증명과 창조개념에 대한 현대적 조명」, 『철학논총』 46집 4권, 새한철학회, 2006.
- \_\_\_\_\_, 「중세철학에서 내면성의 의미」, 『중세철학』 15호, 한국중세철학회, 2009.
- \_\_\_\_\_, 「토미즘에 있어서 선과 가치 그리고 존재에 대한 지성의 동의」, 『철학연구』 제98집, 대한철학회, 2006.
- \_\_\_\_\_, 「토마스에 있어서 인간의 의식의 특수성과 새로운 윤리관의 전망」, 『철학연구』 103집, 대한철학회, 2007.
- 이상섭, 「신 존재 증명의 타당성에 관한 하나의 고찰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대전』 제1부 제2문제를 중심으로」, 『중세철학』 14권, 한국중세철학회, 2008.
- 이재룡,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 존재 증명에 관한 소고」, 『가톨릭신학과사상』 47호, 신학과사상학회, 2004.
- 이태하, 「보나벤투라의 신 존재 증명」, 『기독교철학』 4권1호, 한국기독교철학회, 2007.
- 전성용, 「신 존재 증명에 관하여」, 『교수논총』 15집, 서울신학대학교, 2004.

## ABSTRACT

### Five methods in proofs of the existence of God of Thomas Aquinas and the philosophical significance

Eun-mi Shim

Department of Philosophy

Graduated school of Jeju National University

In this article, I studied historical arguments for the existence of God, which is still a subject in philosophical inquiry. Especially, I looked at five proofs of the existence of God of Thomas Aquinas based on Aristotle's Metaphysics and their significance. Contrary to the previous philosophers who had tried to prove the existence of God just by the philosophic reasoning, Thomas Aquinas proved the existence of God by the evidences starting from the empirical and substantive facts which were generally affirmed by human reason. It is a proof based upon reason, a logical reasoning ability of the human and it is meaningful to be able to know God-orientedness and intimacy through human mind toward to be curious to know about something. Because the traditional proofs of the existence of God were insufficient and limited, Thomas Aquinas intended to more substantively demonstrate the existence of God rather than prove the existence of God to nonbelievers, that is he tried to seek for more reasonable answer about primitive inquiry, "Why God should exist instead of not existing?" His proof shows that human intelligence can sufficiently demonstrate that even though people might not know what God is, but they could find out the fact God exists by their efforts through human intelligence. We can fully discover the truth not by revelation but by reason through our constant efforts and it is worthy in the way that it is a process to complete and actualize oneself. Human can realize the existence of God by their faith

and at the same time they can be doubtful when they are convinced God's existence only by faith. Through this doubt they can get more resolute faith and it is meaningful to say that its process is confirmed by reasoning. We cannot completely recognize God that is inevitable Himself but can perceive His presence with the similarities with God which are found in the results by reasoning. The entire significance of proofs of the existence of God of Thomas Aquinas is to understand that intellectual desires of human being is naturally oriented to God as their ultimate purpose.